

금융사 대체투자 부실뇌관 자른다

금융당국, 부동산·사모펀드 등 300억 이상 투자자산 전수조사

기한이익상실 사유 3개월세 1조↑ LTV 파악 등 리스크 선제 대응

금융당국이 300억 원 이상 규모의 금융회사 대체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자산 부실화가 우려되는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큰 업권을 중심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전체 금융권 중 투자금이 가장 많은 보험권에 대한 단속이 집중됐다.

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은 지난주까지 보험업권을 대상으로 건별 300억 원 이상 규모의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항공, 선박 등 전체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 아닌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규모가 큰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전체 대체투자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며 "매월 7영업일 전까지 전체 대체투자 월별 자료를 취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과정도 유례없이 촘촘하게 진행됐다. 금감원은 투자자산을 420여 개로 나열해 국적을 비롯, 소재와 유형, 기준 통화, 취득가액, 자산가치 평가 시점과 평가 방법, 대출 유형 등을 구분하도록 했다. 투자자산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보여주는 담보인정비율(LTV)까지 파악하도록 주문했다. EOD는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

·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LTV 조건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중 보험사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은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시기에 자산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SOC를 중심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대거 늘려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4000억 원이다. 이 중 보험은 31조9000억 원(57%)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은행 10조1000억 원(18%), 증권 8조4000억 원(15%), 상호금융 3조7000억 원(7%) 순이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 규모는 12조7000억 원(22.5%)이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 규모는 43조7000억 원(77.5%)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의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로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사업장이나 투자건별 만기 도래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금융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국내 금융권의 투자 자산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5조8000억 원 중 2조3100억 원(6.46%)에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3개월 전(6월) 공개한 1조3300억 원(전체 사업장의 3.7%)에 비해 1조 원 늘어난 규모다. 김병근 기자 nova@·손희정 기자 sonhj1220@



총선 D-1... '금배지' 주인공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준비위원회 현판식에서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300개의 국회의원 배지가 공개됐다. 흔히 '금배지'로 알려진 국회의원 배지는 앞이 5개인 무궁화꽃을 형상화한 모양으로 도안됐다. >관련기사 6·8면 신태현 기자 holjjak@

尹 "해외순방에 스타트업 동행... 세계적 기업 성장 지원"

스타트업 초청 오찬 간담회

"국민과 약속한 자본시장 상생 위해 금투세 폐지 등 차질없이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해외 순방을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그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벤처 및 스타트업 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 나의 생각도 비슷하다"면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

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 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호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졌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실히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은 CES 2024 혁신상 수상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는 청년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지난해 8월 마련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은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 대국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2027년 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은 5개(2022년 기준 1개)로 늘리고,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를 7위(서울 기준, 2022년 10위)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2027년 까지 벤처 투자 규모를 14조2000억 원(2022년 기준 12조5000억 원)으로 늘리고, 지역 기반 기술 창업 비율도 40%(2022년 기준 37.4%)로 높이는 계획이 핵심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상업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윤찬 에버엑스 대표, 김다원 마리나체인 대표, 김철용 지크립토 선임연구원 등 청년 스타트업 대표와 임직원, 하태운 위벤처스 대표 등 벤처캐피털 및 전문가 등 13명의 스타트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국제유가가 2년 만에 배럴당 100달러 선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전쟁이 최대 고비에 직면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벤치마크 유종인 브렌트유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5일 배럴당 91.1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 멕시코 원유 수출 감축, 홍해 혼란에 따른 원유 수송 지연,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감산 지속 등이 유가를 대폭 끌어올렸다. >관련기사 4면

블룸버그통신은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해 100달러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현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유가의 향방은 세계 각국이 경계하는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

고 켜졌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기초 생활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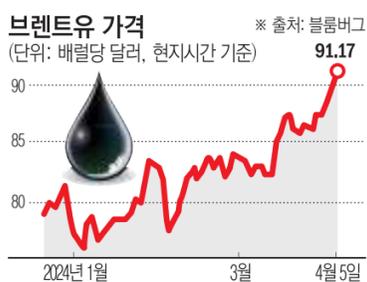
골드만삭스는 지정학적 타격이 더는 발생하지 않고 OPEC+가 3분기 감산을 멈출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스라엘군이 이날 가자지구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 상당수를 철수했다고 발표하면서 휴전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되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도 모든 당사국이 기본 사항에 관해 합의하는 등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긴장 완화를 반영해 아시아 시장에서는 8

불붙은 국제유가... 불 꺼진 디스인플레이

<물가상승률 둔화>

브렌트유, 2년 만에 100달러 눈앞
이·팔 전쟁, 휴전 기대감 커졌지만
이스라엘-이란, 군사적 긴장 고조
최악의 금리상승세 세계경제 침체



일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2%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안심은 이르다. 최근 국제유가는 여러 공급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반영해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피격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란은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보복을 천명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군사 고문인 라힘 사파비 장군은 이날 "이스라엘 대사관 가운데 더는 안전한 곳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을 상대로 전개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며 맞불을 냈다.

백악관 에너지 고문 출신 밥 맥널리 래피던에너지그룹 대표는 최근 공급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유가 100달러가 전적으로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가격 책정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반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시장에 연쇄 충격을 가해 세계 경제를 침체의 수렁에 몰아넣을 것으로 우려된다. 변효선 기자 hsbun@

LG 구광모 “美 독립법인 이끌 Clean Tech EO 모십니다”

〈클린테크·친환경 기술〉

클린테크 ‘LG노바’서 분사

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서 친환경 기술 독립벤처 출범 예정 신성장 분야 혁신리더 모집공고

LG전자가 미국에서 이르면 상반기 내로 클린테크(친환경 기술) 사업을 담당하는 벤처 법인을 설립한다. 회사는 신규 법인을 이끌 최고경영자(CEO) 모집에 나서는 등 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클린테크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꼽는 ‘ABC(AI·바이오·클린테크)’ 중 하나다.

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LG전자는 미국에서 클린테크 독립 법인을 책임질 CEO 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받고 있다. 클린테크 독립 법인은 LG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클라라에 설립한 북미

LG그룹 국내 투자계획 (단위: 원)
투자기간 2024~2028년
총 투자규모 약 100조

유형별 투자 규모	
산업	미래 기술 및 성장분야 (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배터리·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50조
	가전 등 주력사업
	50조

LG그룹 ‘A·B·C’ 사업과 클린테크

- A(AI·인공지능)
- B(바이오)
- C(클린테크)
바이오소재 활용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페플라스틱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기반 탄소 저감 기술 강화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노베이션센터(LG노바)에서 분사하는 형식을 취한다.

앞서 지난해 LG전자는 LG노바 내에 클린테크 태스크포스(TF)팀을 설립하며 분사 준비에 나선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LG노바에서 분리되는 새로운 클린테크 벤처를 이끌어갈 비전과 헌신, 열정을 갖춘 CEO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LG노바는 LG전자가 회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최고운영책임자(CSO)

부문 산하에 2020년 말 설립한 조직이다. 사물인터넷(IoT) 분야 전문가이자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부국장을 지낸 이석우 부사장이 센터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며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LG노바는 혁신 사업 육성으로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조직 미션을 갖고 있다”며 “자체 육성, 직·간접 투자 등을 통해 혁신기업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LG노바에서 분사하는 클린테크 신규 법인은 생분해성 고분자 플라스틱, 신재생에너지 산업 소재 등 친환경 관련 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플랫폼 등 9개 스타트업을 소개했다. 신규 법인은 유망

한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통해 클린테크 관련 비즈니스 모델 및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클린테크는 바이오·소재·신재생에너지 산업·소재·패 배터리 재활용·전기차 충전 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산업 영역이다. 특히 탄소 중립 정책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구광모 회장도 일찌감치 클린테크를 신사업으로 짚었다. 그는 2022년 미래 먹거리로 ‘ABC’를 낙점하고 클린테크 분야에 5년간 1조8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2022년 투자 계획을 보완해 추가 투자에 나섰다. (주)LG는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향후 5년간 약 1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은 이른바 ‘ABC’ 분야로 불리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클린테크 등 신성장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송영록 기자 syr@

알리에서 우리 애 가방 샀는데... 발암물질 56배 검출

서울시, 中 해외직구 상시검사 결과 튜브·연필·목재 등 유해물질 범벅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유해 제품 공개에 나선 방침이다.

8일 서울시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성 검사 실시와 전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구제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안

전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알리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안전성 조사 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물 상위에 랭크된 어린이 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보행기 △목재 자석납시 장난감 △치발기(사탕 모양) △치발기(바나나모

양) △캐릭터 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는 수치였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치발기는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컸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이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 일부.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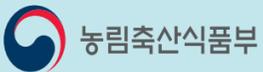
에 베임이나 낚 등의 가능성과 낙상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4월 넷째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소비자피

해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chaebi@



스마트농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스마트농산업 국내 기반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 수직농장 지원 제도 정비



- 1 산업단지 입주 허용
- 2 농지 위 설치 허용
- 3 경제성 개선 위한 정책지원 강화

· ICT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 1 센서·구동기·복합환경제어기(2월)
- 2 주요 기자재 환급 대상 확대 추진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



- 1 전문 교육기관 지정
- 2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3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 육성

· 기술기반 유망기업 집중 지원



- 1 민간투자 유치·경영실적 우수 기업 지원
- 2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



뜨는 印

‘세계 경제성장 엔진’ 타이틀 교체 예고

지는 中

희비 갈린 양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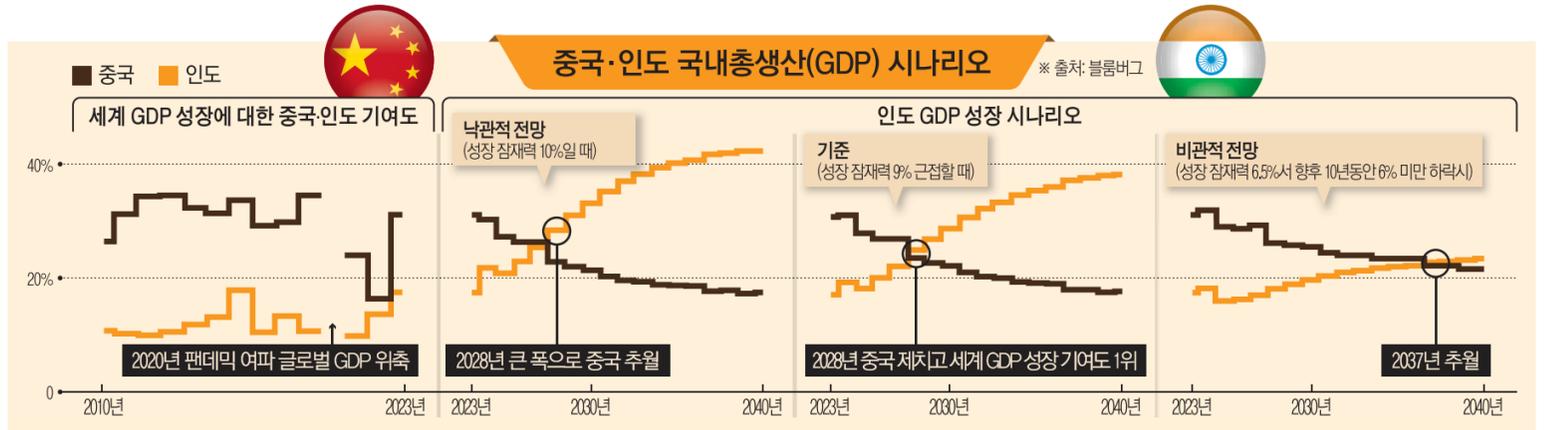
글로벌 GDP 성장 기여도 1위 인도, 2028년 중국 앞설 전망 中 부동산·주식시장 부진한데 印 성장 잠재력에 외국인 투자 인프라개선·제조역량 등 과제

인도가 중국을 대신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성장 엔진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인도가 2028년까지 중국을 제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최대 기여국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 대국’ 타이틀을 인도에 빼긴 데 이어 ‘글로벌 성장 엔진’ 타이틀까지 내줄 위기에 놓였다.

최근 인도와 중국 경제는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불황, 주식시장 부진, 지정학적 긴장 고조, 저출산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 반면 인도 주식시장은 호황을 이루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또한 넘쳐나고 있다. 각국 정부는 14억 인구의 젊은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 인도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줄을 서고 있다. 미국 애플이 이곳에서 아이폰 생산을 확대하고 테슬라가 현지에서 새로 지을 전기차 공장 설립 부지를 모색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물론 아직 인도의 GDP는 3조5000억



달러(약 4736조5500억 원)로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17조8000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열악한 도로, 교육 격차, 관료주의, 숙련된 노동자 부족 등 한계점도 명확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도가 중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잡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인도가 글로벌 성장 엔진 측면에서는 중국을 빠르게 추월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인도가 향후 5년 내 세계 최대 경제성장 기여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역시 인도가 이르면 2028년 세계 GDP 성장 기여도 1위 국가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동시에 인프라 개선, 제조역량 확대, 모든 근로자를 수용할 더 나은 도시 건설, 적극적 공장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대 말까지 연평균 9%로 가속화하는 반면, 중국은 3.5%로 둔화할 전망이다. 이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성장 동력 국가로 떠오르는 시점은 2028년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인도 경제 성장률이 향후 5년간 6.5%에 머물 것을 가정하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인도는 2037년 중국의 글로벌 성장 기여도

를 앞지를 것으로 관측됐다.

아난타 나게스와란 인도 정부 수석 경제 고문은 최근 인터뷰에서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중국과의 비교를 경계하면서도 “인도의 성장 잠재력, 젊은 인구, 인프라 구축, 중산층 확대 가능성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용 경쟁력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적 창출 능력, 법치주의, 해외 투자자들이 비교적 쉽게 돈을 송금할 수 있

는 정책의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인도 정부는 이미 인프라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경제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 기대된다. 인도 정부의 2024~25 회계연도(올해 4월~내년 3월) 인프라 예산은 약 11조 루피(약 179조 원)로 5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지방정부 예산까지 포함하면 20조 루피 이상이다.

변호선 기자 hsbun@

중장기 성장 기대감... 인도펀드 ‘몽칫돈’

모디 정부 제조업 성장 드라이브 인프라 현대화 작업 긍정적 요인 펀드 설정액 올해 3348억 급증

인도 펀드에 몽칫돈이 돌리고 있다. 19일 시작되는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3연임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모디 노믹스(인도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세계은행이 예측한 2024~2025 회계연도 인도 경제성장률은 6.6%다.

8일 펀드 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28개 인도 펀드 총 설정액은 5일 기준 1조1682억 원이다. 연초 이후 3348억 원 늘었다. 이는 지역별 펀드 가운데 중국(2008억 원)과 일본(744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펀드 운용 성과가 반영된 순자산은 지난해 말 1조6720억 원에서 2조3704억 원으로 불어났다.

인도 펀드에 몽칫돈이 몰리는 것은 중장기 성장성이 부각된 덕분이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인도 경제성장률을 6.5%에서 6.8%로 상향했다.

‘메이크인인디아’(Make in India)를 내세운 인도 정부의 제조업 성장 드라이브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인프라 현대화 작업도 경제성장의 긍정적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는 노동력 확보와 시장 규모 확대의 기반으로 작

용하고 있다.

모디 정부는 반도체 굴기도 꿈꾼다. 인도 정부는 2021년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인도반도체미션(ISM)’을 구축하고 관련 펀드를 만들어 반도체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들도 인도로 향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22년부터 글로벌 기업 63% 이상이 중국 내 생산기지를 인도와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다. 인도 정부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앞세워 ‘탈중국’에 나선 주요 기업을 발 빠르게 유치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 1월마켓워치와 인베스트 등은 관련 통계를 인용해 인도 증시의 시가총액이 4조3300억 달러(약 5793조5400억 원)에 달해 홍콩을 제치고 세계 4위로 올라섰다고 전했다.

김근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변동성 확대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인도 총선 이후 정치 리스크 및 불안감 해소에 따라 전반적으로 긍정적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신흥 시장 펀드의 90% 이상이 중국 본토 주식에 대한 비중을 다시 늘리는 반면 인도는 축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인도 증시의 센섹스(SENSEX) 지수는 3% 대 상승세로 최근 둔화 추세다.

윤혜원 기자 hwyoon@

빨간펜 Ai CANDO

새학기 공부 자신감의 비밀!

기초부터 최상위권까지 새학기 성적 향상은 아이캔두 하나로 끝!

초등 공부 아이캔두 하나로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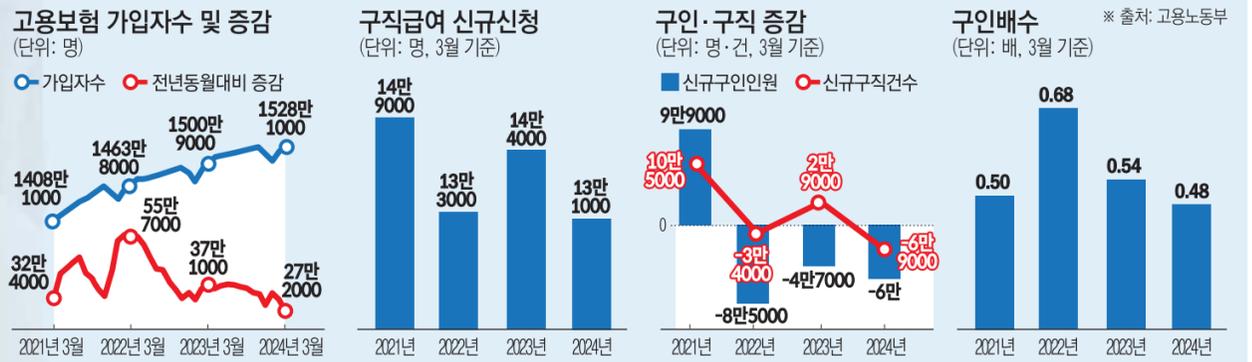
무료체험하고 선물받기

학교 공부 실력 UP 초등 교과 완벽 연계

공부 자신감 UP 1:1 맞춤 관리

자기주도학습 UP Ai 학습 솔루션

2040 취업난에... 고용보험 신규가입 37개월 만에 최소



고용보험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 증가 폭이 37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작년 3월 말보다 27만2000명(1.8%)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 폭은 둔화 추세다. 지난달 증가 폭인 27만2000명은 2021년 2월의 19만2000명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작다.

20대와 40대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이 전체 가입자 증가세를 제한하는 모습이

다. 3월 말 기준 29세 이하 가입자는 전년 대비 7만7000명(-3.1%) 줄었다.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40대 가입자도 2만3000명(-0.7%) 줄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20대와 40대 전체 인구가 각각 21만8000명, 13만9000명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인구가 증가한 60세 이상에선 고용보험 가입자도 20만7000명 큰 폭으로 늘었고, 50대(11만6000명), 30대(4만8000명) 가입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늘어난 27만2000명 중 28%인 7만6000명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가입자다. 내외국인 가입자를 합쳐 업

3월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전년동월비 27만2000명 증가
20대 인구 감소로 19개월째 ↓
40대 2.3만명 줄며 5개월째 ↓
제조업 내국인은 반년째 감소

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선 각각 5만4000명, 21만7000명 늘고, 건설업에선 6000명 줄었다. 건설업 가입자 감소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6개월째 감소세다. 제조업 내에선 금속가공, 식품, 기타 운송장비업 등에서 가입자가 늘고, 섬유제품과 전자통신에선 줄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에서 큰 폭으로 늘고 도소매,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했다.

한편 3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3.3%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5000명, 지급액은 9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 6.2% 줄었다.

지난달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구인인원은 19만9000명, 신규 구직 건수는 41만

7000명으로, 역시 작년 3월 대비 각각 23.2%, 13.7% 감소했다.

신규 채용도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0.6 후반대를 유지하던 워크넷 구인배수는 올해 0.5 안팎을 오가고 있다. 3월에는 0.48을 기록했다.

구인배수는 신규 구직 건수 대비 신규 구인인원이다. 구인배수가 낮다는 건 구직자에 비해 일자리가 적다는 의미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인인원은 2021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부족인원이 어느 정도 충족돼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미적대는 미국... 한은, 4월 금리동결 무게

이달 금통위 카운트다운
높은 물가·연준 인상 가능성에
10연속 기준금리 동결할 수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피벗(정책전환) 시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 심리는 이미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물가 관련 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달 12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0%다. 작년 1월 13일 회의에서 결정(0.25%p 인상)됐다. 이번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세 번째 최장 동결인 1년 3개월 5일(2013년 5월 9일~2014년 8월 14일)에 준하는 기간이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물가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미국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이 나왔다.

CNBC에 따르면 미셸 보먼 미연준 이사는 최근 “나의 기준 전망(baseline outlook)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정체되거나 역전될 경우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리 동결 종료와 인하 시점을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신규 고용 30만3000명)가 시장 예상치(20만 명)를 웃

돌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졌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국내외 경제 여건은 조성되지 않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의 심리는 이미 금리 인하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금리수준전망CSI는 98로 전월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2020년 11월(97) 이후 최저치다. 시장에서 미국의 인하 시점을 늦추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은 역시 피벗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승원·박윤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연준의 금리인하 시나리오를 6월부터 4회에서 7월부터 2회 인하로 전망을 조정했다. 이에 금통위의 금리 인하 역시 5월 첫 인하에서 7월부터 3회 인하로 전망을 수정했다. 연구팀은 “2월 금통위당시 이창용(사진) 총재는 ‘미국이 인하를 시작하거나 신호가 있을 경우 각국이 차별화된 정책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며 “즉, 한은도 연준의 인하 신호를 확인한 이후에는

한국의 펀더멘탈에 맞춘 대응을 나서겠다는 의미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연준은 7월 금리인하 이후 단계적으로 동결 사이클로 진입하겠지만 미국과 다르게 소비, 물가가 범피(bumpy·울퉁불퉁한)하지 않게 둔화되고 있는 한은은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미 연준 인사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베이스라인은 아니지만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큰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을 확인한 후 국내 금리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 워낙 큰 팩터(factor·요인)”라며 “국내 실물경제, 노동시장,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미국을 염두에 둘 여지가 없는데 국내 경제가 움직이는 크기에 비해 미국 경제의 움직임이 많으니 영향이 많이 받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AMRO, 올해 韓경제 전망 “성장률 2.3%·물가 2.5%”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내년 물가 목표치 2.0% 진입할 것”
“재정건전성 유지 지속해야” 권고도

AMRO 성장률·인플레이션 전망 (단위: %)

구분	성장률			인플레이션		
	'23년	'24년	'25년	'23년	'24년	'25년
아세안+3	4.3	4.5	4.2	6.3	4.3	3.7
+3국가	4.4	4.4	4.1	2.3	2.1	2.0
중국	5.2	5.3	4.9	0.2	1.0	1.6
홍콩	3.2	3.5	3.0	2.1	2.5	2.3
일본	1.9	1.1	1.0	3.3	2.5	2.1
한국	1.4	2.3	2.1	3.6	2.5	2.0
아세안	4.2	4.8	4.9	8.0	5.2	4.4
브루나이	1.4	2.7	2.9	0.4	1.4	1.0

아세안+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2.5%로 하향세를 보이고 내년에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AMRO는 8일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2.3%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AMRO가 작년 12월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2.3%)와 동일한 것이다. 올해 중국과 홍콩은 각각 5.3%,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AMRO는 한·중·일을 포함한 아세안+3 지역이 올해 견조한 내수, 투자·수출 및 관광산업 회복으로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중국 4.9%, 일본 1.0%, 한국 2.1% 등으로 제시됐다. 내년 아세안+3 지역(4.2%) 성장률이 올해보다 는 둔화될 것이라 분석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관련해서는 올해 아세안+3 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6.3%)보다 완화된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이보다 낮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한국 물가 상승률은 2.0%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AMRO는 아세안+3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위험 및 기후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경기 하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재정·통화 정책에 대한 권고도 제시했다.

AMRO는 “대부분의 지역 내 국가들이 긴축적이거나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미래 대비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통화 정책의 경우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현재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향후 물가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AMRO는 또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MRO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됐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野 “단독 과반”-與 “막판 약진”... 접전지 50여곳 표심 촉각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좌우할 22대 총선이 임박하면서 여야 모두 마지막 판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을 내건 더불어민주당의 다소 유리한 흐름 속에 중반전을 맞았다는 것이 각 당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접전지 50여 곳의 성적표가 민주당 단독 과반, 국민의힘의 막판 약진 여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양당의 공식·비공식 판세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전국 지역구 254곳 중 110곳 우세, 국민의힘은 90여 곳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자체 비례 전망치로 국민의힘(국민의미래)은 20석, 조국혁신당과의 표심 분산이 불가피한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0석 안팎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접전지를 제외한 지역구·비례 합산 130석, 국민의힘은 110석을 보는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국 주요 접전지로 55곳(수도권 26곳), 민주당은 50~60곳을 꼽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접어들기 전(4일) 기준으로 ‘한강벨트’ 등 총 48석이 걸린 서울과 ‘낙동강벨트’가 속한 40석 PK(부산·울산·경남) 곳곳에서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양당이 판단한 우세지역 확보를 전제로 국민의힘은 접전지 75%(41석) 이상, 민

민주당 ‘우세 지역구’ 110곳 전망 접전지 절반 확보하면 단독 과반 범야권 비례까지... “굳혔다” 자신감

국민의힘, 지역구 55곳 경합 분석 지역구·비례 합쳐 ‘110석+α’ 전망 접전지 75% 이상 가져오면 과반

주당은 절반을 이기면 과반을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저번 총선(180석)처럼 싸움이 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부동층이 민주당 압승을 원하는지 의문이고, 중도층에 영향을 미치는 막말과 부동산 논란도 터졌다”며 “단독 과반은 어렵지만, 범진보 160석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가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었는데 실패했고, 판세는 굳어졌다”며 “민주당 170석을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보다 지역구 10석 정도를 더 얻을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 김준혁·양문석 후보의 논란은 전체 구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84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양당의 판세 전망은 지역구 절반 규모인 수도권(122석)에서 희비가 크게 엇갈린다. 민주당 내에선 용산·동작을 확보 시 한강벨트를 석권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강남 3구를 비롯해 양천갑·동작을·영등포를 등 10여 곳을 우세 또는 경합 우세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74석이 걸린 경기(60석)·인천(14석)에서 민주당은 45~50곳 우세, 국민의힘은 5곳을 우세 또는 경합 우세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전문가는 민주당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봤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180석까지는 어렵지만, 민주당 우위는 분명하다. 범야권 165석을 예상한다”며 “정권심판 여론을 확인해선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최소 130석,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약 10석 이상 앞설 것이다. 조국혁신당 7~8석 등 범야권을 포함하면 과반에 도달할 수 있다”며 “여소야대는 맞지만, 지금과 같은 압도적 여소야대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투표용지 검수하는 ‘매의 눈’ 제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8일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각 동의 투표관리관들이 투표 관련 교육을 받은 후 해당 투표구에서 사용될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안개’ 자욱한 한강벨트... 수도권 25곳이 오차범위 내 경합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수도권에서 여야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합지가 25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총선의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에는 전체 지역구(254개)의 절반에 육박하는 122개의 의석이 걸려 있어 수도권 승패에 따라 전체 성적표가 좌우될 수 있다. 이에 여야는 선거운동 막바지 수도권 접전지를 중심으로 마지막 표심 확보에 나섰다.

8일 본지가 여야의 자체 분석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블랙아웃’ 직전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전체 의석의 약 20%에 달하

용산, 광진갑·을, 송파병 등 서울 48곳 중 10곳이 격전지 성남 분당갑·수원정·연수갑 등 인천·경기 15곳도 접전 예상

는 25곳의 지역구가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경합지로 분류되고 있다.

48석이 걸려 있는 서울 지역에서는 10곳이 격전지로 파악되고 있다.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고 있는 용산구를 비롯해 △광진갑(민주당 이정현, 국민의힘 김병민) △광진을(고민정, 오신환) △양

천갑(황희, 구자룡) △영등포갑(채현일, 김영주) △영등포을(김민석, 박용찬) △중·성동을(박성준, 이해훈) △동작을(류삼영, 나경원) △강동갑(진선미, 전주혜) 등 주로 ‘한강벨트’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1~2일 중앙일보·한국갤럽이 무선전화면접 방식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501명·응답률 10.8%)에 따르면 중·성동에서는 박성준 민주당 후보(43%)와 이해훈 국민의힘 후보(41%)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였다. 영등포에서도 1~3일 KBS·한국리서치가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500명·응답률 11%)에서 김

민석 민주당 후보(43%)와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42%)가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 양상이 나타났다.

74석이 걸린 경기(60석)와 인천(14석)에서는 15곳의 지역구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전 국회 사무총장)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공동선거대책위원장)가 출마한 성남 분당갑을 비롯해 △성남 분당을(민주당 김병욱, 국민의힘 김은혜) △안성(윤종균, 김학용) △포천·가평(박운국, 김용태) △하남갑(추미애, 이용) △오산(차지호, 김효은) △김포갑(김주영, 박진호) △수원

정(김준혁, 이수정) △이천(엄태준, 송석준) △의정부갑(박지혜, 전희경) 등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으로 꼽았던 중구·강화·옹진(민주당 조택상, 국민의힘 배준영)과 동구·미추홀을(남영희, 윤상현), 연수갑(박찬대, 정승연) 등 3곳이 경합지로 분류된다. 현역 의원인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와 남영희 민주당 후보의 재대결이 펼쳐지는 동·미추홀을의 경우, 1~3일 KBS·한국리서치가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500명·응답률 12.5%)에서 남 후보(45%)와 윤 후보(42%)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였다. 기사에 언급된 모든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대환 기자 vishalist@

흔들리는 중원 표밭... 최후에 웃는 자는 누구?

주요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자처했던 충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바짝 추격하는 접전 지역이 늘었다.

8일 정치권은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블랙아웃’에 들어간 데다 본투표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가 41%, 민주당 이재한 후보가 40%의 초접전 양상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KBS정주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6~30일 해당 지역구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 격전 중이다. 이보다 약 열흘 전인 지난달 17~18일 CJB청주방송 등 6개 언론사의 의뢰로 글로벌리서치가 해당 지역구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국민의힘 박 후보가 54%의 지

초반 여론조사 野 지지세 강했지만 막판 ‘보수’ 표심 결집... 혼전 양상

지율로 이 후보(35%)보다 오차범위(±4.4%포인트(p)) 밖에서 앞섰다.

‘세 번째 리턴매치’로 주목받는 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최대 접전지로 바뀌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해당 선거구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 49.4%, 민주당 박수현 후보 44.5%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오차범위(±4.4%p) 내 경합 중이다. 하루 뒤인 YTN 의뢰로 ㈜웹브레인퍼블릭이 지난 1~2일 해당 선거구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국민의힘 정 후보와 민주당 박 후보 모두 42%를 기록했다.

반대로 충남 천안갑에선 박빙 대결을 벌이다 민주당 문진석 후보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충청신문 의뢰로 조원씨앤에이가 지난달 26~27일 천안갑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 후보는 49.4%, 신 후보는 39.6%를 받았다. 두 후보 격차는 9.8%p로 오차범위(±4.4%p) 밖이다. 열흘 전만 해도 두 후보는 1%p 미만의 접전을 벌였다.

이같은 양상에 국민의힘은 선거를 3일 앞둔 전날(7일) 충청 지역을 찾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충남 천안 유세에서 “저희 분석에 따르면 접전 지역에서 골든크로스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며 “나서주셔야 한다. 나서면 이긴다”고 호소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난희 기자 nancho0907@

‘편법대출’ 논란에 차갑게 식은 안산갑

상록구 사전투표율 25.6% 전국 평균 31.3%에 못미쳐

‘편법대출’ 논란이 불거진 안산지역의 사전투표율이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당은 해당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한편, 야당은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5~6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안산갑 선거구가 포함된 안산시 상록구 지역의 사전 투표율은 25.61%로 집계됐다. 선거인수 총 36만7825명 중 9만4204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

안산 단원구의 사전 투표율도 25.37%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경

기도 전체 사전 투표율(29.5%)보다 낮았고, 전국 사전 투표율(31.3%)도 밑달랐다.

경기도 내 안산보다 투표율이 낮은 곳은 오산시(24.55%)와 평택시(25.46%) 2곳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은 대구 달성군(22.88%)보다는 높았다. 안산 지역의 사전 투표율은 과거에도 상대적으로 낮긴 했으나 경기도 내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 낮을수록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속설이 있다. 이번 총선의 전체 사전 투표율이 3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사전 투표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1705명의 행복 파트너

신한은 압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소외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필요한 도움의 손길은 무엇인지
언제나 의미 있는 고민을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따뜻한 노력을 알기에

신한금융그룹은 사회복지사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당신과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김영경 사회복지사님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이수현 사회복지사님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김영경 팀장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

신한금융그룹은 사회복지사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 전국 사회복지관 217개소 1,705명의 취약계층 지원)



與 뒤집기 vs 野 곧히기... ‘최대 승부처’ 수도권 총공세



한동훈(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8일 경기 수원 북수원시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수원갑 김현준, 수원을 홍윤오, 수원정 이수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앞에서 김민석 영등포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韓 “범야권 200석 막아달라” 본투표 독려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주요 격전지인 경기·인천을 찾아 ‘범야권 200석 확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남은 본투표 12시간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렸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광주를 시작으로 이천과 안성, 오후엔 경기 오산과 용인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지지율 박빙인 지역이 인천·경기에 11곳 있다는 당 자체 조사거나 온만큼 그곳을 집중 공략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200석을 가질 경우 여러분이 허락했다고 둘러대며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며 개헌·탄핵 지지선 확보를 호소했다. 전체 의석 300석 중 개헌 지지선은 100석이다.

한 위원장은 경기 광주, 이천 유세에서 “(야권이) 200석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만 하겠다. 대한민국을 바꿀 거다.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조국(조국혁신당) 대표가 자기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200명은 지난 4

년간의 200명이 아니다. 이재명과 조국에 아첨하는 사람들로만 100% 채워놓은, 이재명·조국 친위대 같은 200명”이라며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을 거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4월 10일 12시간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인지, 망하게 할 것인지 정한다”며 “(야권은) 200석을 갖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거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12시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12시간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5년, 10년, 50년 뒤에 ‘우리가 그때 나라 망하게 하는 걸 못 막았다’고 한탄할 건가”라고 했다. 이어 “저 범죄에 연루된 저 사람들은 국회로 가게 되면 자기방어가 1순위다. 그러니까 ‘일하는 척’ 할 수밖에 없다”며 “일하는 척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 나라를 구렁덩덩이로 밀어 넣을 건가”라고 물었다. 앞서 이 대표가 6일 거리 유세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일하는 척했네”라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이·조 친위대 200명... 무시무시한 일”
광주·오산·용인 등 경기지역 집중공략

李 “역주행 멈추게 해야” 정권심판 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 위원장은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초접전지를 돌며 막판 유세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마지막까지 서울 초박빙 지역에서 승부를 봐야 전국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국 주요 접전지로 50~60곳을 꼽았다. 서울에서는 11곳을 초박빙 지역으로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대표적인 ‘한강벨트’ 초접전지인 서울 동작을 향했다. 동작을은 이 대표가 이미 6번이나 찾은 곳으로, 본인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제외하면 최다 유세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류삼영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을 벌이고 있다. 동작을을 7번이나 찾은 것은 이곳을 교두보 삼아 서울지역 의석을 석권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동작을은 서울 전체 판세의 바로미터”라며 “이곳에서 이기면 서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유세 현장에서 “류삼영 후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경원 후보가 이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고, 이 정권의 주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난 2년간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해 자주 찾았다”며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p) 차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 수백 명 아시는 분들 연락해서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라.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작을 유세 지원 후 이 대표는 영등포을과 동대문갑, 종로, 중·성동을, 서대문갑, 양천갑까지 모두 7곳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이들 지역은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한 곳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박빙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해당 지역 유세에서도 이 대표는 “더 이상의 역주행, 퇴행이 불가능하도록 주권자가 (투표로)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맞지 않겠냐”며 정권심판론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현재 범야권 200석 낙관에서 물러나 과반 목표치를 내세우고 있다.

정영인 기자 oin@

동작을 7번째 찾아... ‘서울 압승’ 의지
영등포을·양천갑 등 7곳 유세 강행군

BRAVO My Life
04 APRIL 2024

노후가 달라집니다!

시대를 이끄는 어른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가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광고문의 (02) 799-6727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 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尹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여 빠르게 주택공급 할 것”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이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지금 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기간 등 시차도 존재한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 선도 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

“지금 이 주택시장 정상화 적기 잘못된 주택 규제, 완화 나설 때 뉴빌·서울 대개조 사업 연계해 내년부터 사업 본격 시행 예고 국회에 법안 개정 협조 당부도

겠다”고 말했다. 또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뉴빌 사업과 서울시의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을 연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 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면서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으로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면서 “지난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

의 원인을 투기 문제에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정책 성과도 설명했다. 2023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이 2022년의 72% 수준으로 떨어졌고, 서울 30평대 아파트 보유세는 2021년 525만원에서 2023년 245만원으로 줄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대못’ 개선 등 시장 정상화 조치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시 주택 공급 활성화와 뉴빌 사업 조기 착수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토론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ngkr@



주류 출고금액 재작년 10조... 사상 최대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2년도 주류산업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주류 출고금액은 전년보다 12.9% 증가한 9조970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돼 있다.

국내 주류 출고금액이 출고가 인상으로 재작년 1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의료 남용 방지”

정부가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손보험을 개선한다.

박민수(사진)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보험 지급액은 12조9000억 원이며, 이 중 10조6000억 원(82%)은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지급액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높여왔지만, 비용의식 저하와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의료계 왜곡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5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정책 토론회에서도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전반적

실손보험 82% 부담액 거의 없어 과도한 보상 의료체계 왜곡 초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 고려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 완화

인 의료 이용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차관은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 의료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 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비급여 공개제도를 확대해 가격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 까지 공개한다. 박 차관

은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9일부터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1년간 유예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박 차관은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돌아온 '가맹점의 봄'... 커피 프랜차이즈 3000개 늘었다

<1년새>

2022년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 수가 한 해 동안 3000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점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66.2%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맹점 수는 35만 2886개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1년새 1만 7588개(5.2%)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종 가맹점 수는 17만 9923개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다. 한식업종이 3만 9868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치킨(2만 9423개), 커피(2만 6217개), 주점(9379개), 제과제빵(8918개)이 뒤를 이었다. 가맹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커피였

공정위, 가맹사업 현황 통계

전체 가맹점 수 5.2% 늘어

2022년 말 35만 2886개

코로나 19 이전 수준 회복

외식업종 평균매출 127% 증가

주점 가맹점 매출은 66% 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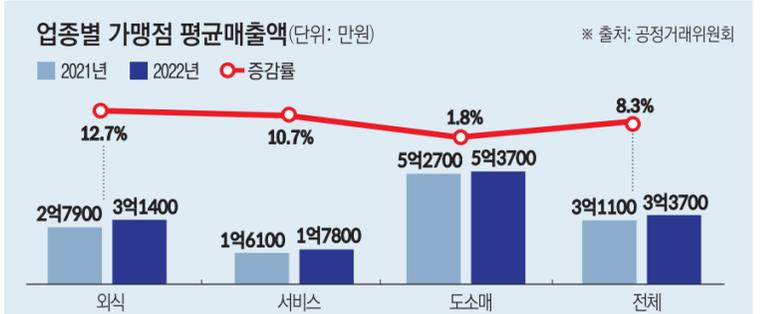
다. 2만 3204개에서 2만 6217개로 3013개 증가해 1년 만에 13.0%가 늘었다.

신규개점 점포 수가 가장 많은 커피 브랜드는 컴포즈커피(626개)였고, 다음은 메가엠지씨커피(572개)와 백다방(278개) 순이었다. 전체 가맹점 수는 이디야커피(3005개), 메가엠지씨커피

(2156개), 컴포즈커피(1901개) 순으로 많았다. 커피 다음으로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난 업종은 한식(10.7%)이었다. 한식 가맹점 중에서는 열정국밥(251개)의 신규 점포 수가 가장 많았고, 전체 가맹점 수는 본죽&비빔밥(836개)이 1위였다.

치킨의 가맹점 수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됐다. 가맹점 수는 bbq(2041개), 신규 점포 수는 BHC(443개)가 가장 많았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치르치르(9억 8323만 1000원)가 가장 높았다.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억 1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7% 늘었다.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을 크게 받은 주점은 매출이



66.2%나 뛰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브랜드 비중은 36.8%로 전년 대비 9.6%포인트(p) 증가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가맹본부 가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 비율은 4.4%였다. 업종별로는 치킨이 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커피(6.8%), 제과제빵(5.5%) 순이었다. 외식업종의 개점률은 22.4%, 폐점률은 14.5%로 나타났다. 한식의 개점률이 29.9%로 가장 높았으며,

폐점률 역시 18.2%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종의 가맹점 수는 10만 4134개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운송업종은 가맹점 수가 2만 7523개로 2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외국어교육(1만 6429개), 교과교육(10만 532개), 이미용(5262개)이 뒤를 이었다. 운송업종은 전체 가맹점 수와 신규개점 점포 수 모두 카카오톡 블루가 가장 많았다. 이혜근 기자 pinvol1973@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축구도 하나

은행도 하나

카드도 하나



하나 **뿐인**
내 편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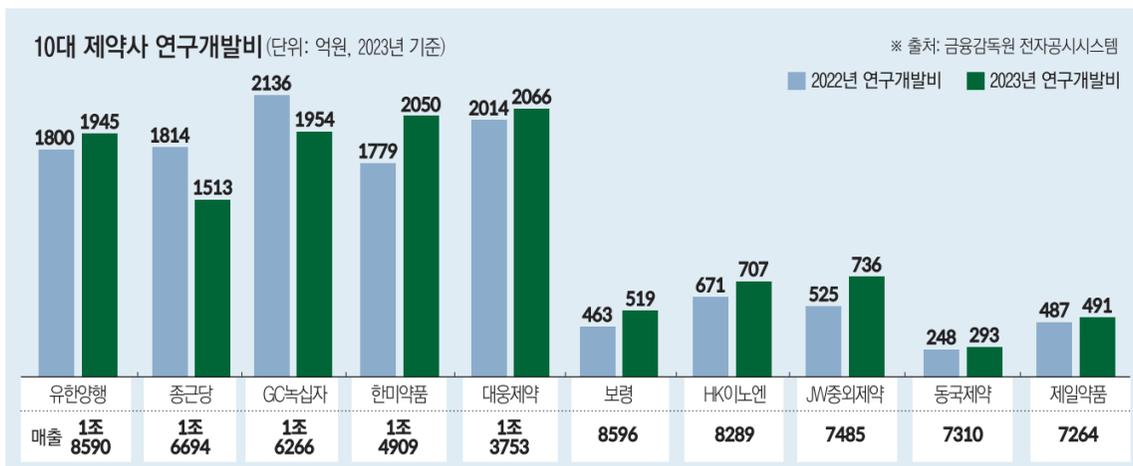
매출 10% R&D에 투자... 10대 제약사 신약개발 사활

10대 제약사 중 8곳 R&D 늘려 '1위' 유한양행 지난해 1945억 대용제약·한미약품 2000억대 '신약 성공' 제약사 더 많이 투자 알레르기·비만·당뇨약 등 개발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외형 성장에 발맞춰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 미래 먹거리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매출 기준 상위 10대 상장 제약사 중 8곳이 2022년보다 R&D 비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의 10% 안팎을 R&D에 지출하며 신약개발과 실적 확대가 꼬리를 무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통 제약사 1위 유한양행은 지난해 연구개발비 1945억 원을 기록해 전년(1800억원)보다 8.1% 투자 규모를 늘렸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썼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렉라자'로 R&D 성과를 맞췄다. 국내에서 1차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된 렉라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절차도 밟고 있어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기대되는 품목이다.

이에 유한양행은 '넥스트 렉라자'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와 면역항암제 'YH32367'이 유력

후보군으로, 개발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최대치를 찍은 대용제약도 R&D 투자가 두드러진다. 지난해엔 2066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했다. 대용제약은 국산 34호 신약 '펙스클루'와 36호 신약 '엔블로'를 개발하고, 올해 각 품목의 매출을 1조 원 규모로 키운다는 성장 전략을 내놨다. 현재 비만·당뇨, 특발성 폐섬증, 자기면역질환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동 중이다.

비만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미약품은 지난해 매출의 13.8%인 2050억 원을 R&D에 투자했다. 장기지속형 GLP-1 제제 '에페글레타이드'의 임상 3상 투약이 시작됐고,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는 FDA 임상 1상 신청 등 R&D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이 1조 원을 넘는 대형 제약사 중 연구개발비가 줄어든 곳은 종근당(1513억 원)과 GC녹십자(1954억 원)

다. 종근당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2022년 R&D 투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를 중단하며 줄어든 사례다. GC녹십자는 지난해 매출이 빅5 중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투자는 줄었지만 두 회사 모두 지난해 R&D 성과를 냈다. 종근당은 노바티스에 1조7300억 원 규모 기술수출에 성공했고, GC녹십자도 혈액제제의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다.

연매출 1조 미만 10대 제약사의 경우 연구개발비 투자가 대형사만큼은 못하지만, 확대 노력이 꾸준하다.

매출 8위 JW중외제약은 2022년 525억 원이던 연구개발비를 2023년 736억 원으로 40.2% 대폭 늘렸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찍은 만큼 R&D 보폭을 더욱 넓히는 모양새다. JW중외제약은 자체 개발 R&D 플랫폼 '주얼리(JEWELRY)'와 '클로버(CLOVER)'를 통해 '윈트(Wnt)'와 '스탯(STAT)'을 타깃하는 항암·면역질환·재생의학 분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한화시스템, 軍정찰위성 2호기에 탑재체 공급

위성, 스페이스X 팰컨9으로 발사 SAR 센서·데이터링크 개발 참여

한화시스템은 대한민국 독자 정찰위성 2호기 탑재체(SAR) 위성 탑재체를 공급했다고 8일 밝혔다. 위성은 이날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로켓을 사용해 발사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진행 중인 군정찰위성사업(425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한반도와 주변을 감시·정찰하는 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1기를 발사하는 사업이다.

한화시스템은 2018년부터 SAR 위성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SAR 센서'와 '데이터링크 시스템' 개발에 참여, 이번에 발사한 2호기를 포함해 총 4기의 SAR 위성 탑재체

를 공급했다. SAR은 지상 및 해양에 레이더파를 순차적으로 쏜 후 레이더파가 굴곡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선차순으로 합성해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내는 레이더 시스템이다. 주야간 및 악천후와 관계없이 지상을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어 전자광학(EO) 위성의 '정찰 사각'을 보완할 수 있다.

SAR 위성은 빛을 잘 반사하는 금속 표적을 구분하는 데 탁월하다. 단단한 장갑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레이더·미사일·탱크 등과 같은 군사 장비들이 수풀과 위장막 등으로 가려지면 EO로는 관측이 어렵지만 SAR로는 식별할 수 있다. 이때문에 SAR 기술은 1960년대 초부터 군사·정보 분야에서 활용됐다.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SAR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넓은 농경지의 토양 수분 분석을 통한 작황 상황 파악 △지하에 매장된 자원 탐사 △지진의 전조증상인 토양 액

상화·지각 이동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미국 시장 조사 기업 '글로벌마켓인사이드'에 따르면 2022년 55억 달러(약 7조4000억 원) 규모였던 SAR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업, 도시 계획, 인프라 및 자연 자원 관리를 포함한 여러 민간 분야에서 지리정보 수요가 증가해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SAR 위성 개발에 참여한 한화시스템 우주연구소의 김성필 전문연구원, 이진규 선임연구원, 이명재 전문연구원 등은 SAR 위성 발사 성공 소식과 함께 감회를 밝혔다.

김 전문연구원은 "최근 SAR 센서 탑재체 전자부 및 안테나 간 통합 시험을 총괄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시험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위성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다"며 "개발에 참여하며 위성 기술 자립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8일(한국시간)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소매유통 2분기 경기전망↑
이커머스 공세에는 '불안'
대한상의, 500곳 RBSI 조사

올해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가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대한 국내 유통업체들의 불안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85'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7)과 대형마트(96)는 기준치(100)에 근접하며 전체 전망치 상승을 견인했다. 온라인쇼핑(78-84)과 편의점(65-79)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형마트(96)도 높은 전망치를 보였다. 신선식품과 체험형 공간 확대에 따른 고객 효과에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온라인(78-84)도 전망치가 소폭 상승했다. 대면소비 증가에도 온라인의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온라인플랫폼이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는 점이 기대감 상승을 제한했다.

편의점(65-79)은 전 분기 대비 전망치가 가장 크게 상승한 반면 슈퍼마켓(77-77)은 지난 분기와 동일한 전망치를 보였다.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진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국내 유통기업들의 위기의식도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이나 유통업체에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 업체의 69.4%는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 업체의 74.4%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강문정 기자 kangmj@

'실적 적자' 스테이지파이브, 제4이통 순항할까

"투자 유치금이 부채로 잡혀
재원마련·사업진행 문제 없어"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주관사 스테이지파이브가 지난해 적자 실적을 기록하면서, 업계에서는 제4이통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연이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스테이지파이브 측은 외부 투자 유치금이 부채로 잡힌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영업손실 매출 442억 6368만원, 영업손실은 130억 3440만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62배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2.36배 늘었다. 자본잠식 규모는 168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0억 가량 늘었다.

스테이지파이브 측은 "신사업을 위한 코어망, 인프라 개발과 같은 전략적 투자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의 외부

스테이지파이브 연간 실적 (단위: 억원)

	2022년	2023년
매출	272	443
영업손실	55	130

※ 출처: 감사보고서

제4이통사 추진 정책 타임라인

2023년	1월	정부, 5G 28GHz 신규 사업자 유치 종합대책 발표
	11월	정부, 5G 28GHz 신규 사업자 모집
2024년	1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제4이통사 선정
	5월	제4이통사 법인 설립 및 주파수 할당대가 10% 납부 기한

투자유치금이 부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지파이브 관계자는 "상장을 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바꾸면서 마이너스 폭이 커졌다"면서 "최근 스타트업은 상환

우선주 형태로 투자를 받고 오히려 투자를 받았다는 건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 2022년 상장 준비를 위해 일반 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기준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했다.

스테이지파이브의 설명에도 업계에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제4이통사 도입을 추진했으나 사업자가 재무요인 등으로 7번이나 시장 진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입하려던 사업자들이 번번이 탈락했다. 정부는 결국 지난해 선정 방식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며 재무 건전성을 심사 절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재원 마련 및 사업

진행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그간 꾸준히 밝혀왔다. 스테이지엑스는 신한투자증권 주관으로 조달하는 초기자금 4000억 원과 향후 2000억 원 규모 시리즈A 유상증자까지 더하면 유동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을 받을 당시 제시한 3년간 최소 투자액은 주파수 할당대가 4301억 원, 통신인프라 의무구축 비용 1827억 원으로 총 6128억 원이다. 스테이지엑스는 5월 4일까지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할 법인을 설립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4301억 원 가운데 10%(430억 원)를 납부해야 한다. 스테이지파이브 관계자는 "5월 4일까지 해당 절차를 문제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삼성전자 찾은 '보다폰'... 유럽 '오픈랜 시장' 공략 박차

유럽의 최대 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를 찾았다.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을 중심으로 통신장비 사업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보다폰 주요 임직원들이 지난달 말 삼성전자 본사를 찾아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마르케리타 델라 발레 보다폰그룹 CEO가 직접 방문해 유럽 전역에 걸쳐 양사의 오픈랜 입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는 영국과 루마니아 등에서 보다폰의 오픈랜 상용화를 위해 관련 통신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양사

의 오픈랜 협력을 향후 유럽 전 국가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구상이다.

오픈랜이란 서로 다른 제조사가 만든 통신 장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 기술을 말한다. 기지국에는 여러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동안에는 같은 제조사의 장비만 쓸 수 있어 비용 등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높았다.

오픈랜이 상용화되면 특정 제조사에 대한 장비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설비 투자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향후 6G(6세대) 등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은 오픈랜 기반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논의로 양사의 협력 관계가 더욱

2월 오픈랜 장비공급 계약 이어

3월 말 보다폰 CEO 직접 방문

유럽 전역 오픈랜 상용화 논의

삼성전자, 통신장비 시장 주목
JY, 6G 연구 삼성리서치 찾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21년 6월 보다폰의 4G·5G 네트워크 장비 주요 공급사로 선정된 이후 사업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2월에는 보다폰과 루마니아 20개 도시에 오픈랜 구축을 위한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오픈랜 호환 트리플 밴드 무전기, 5G 메시브다중입출력(MIMO) 무전기 등 vRAN(가상화 기지국)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같은 달 삼성전자와 보다폰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경기 수원 삼성전자 R&D 연구소에서 오픈랜 기술을 활용한 통화 시연에 성공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보다폰은 AMD의 차세대 통신 전용 중앙처리장치(CPU) '에픽(EPYCTM) 8004'를 활용·구동해 오픈랜 소프트웨어 성능을 크게 개선시켰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오픈랜 투자 규모는 올해 누적 90억 달러(약 12조 원)에서 2030년

300억 달러(약 40조 원)로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첫 경영행보로 6G 통신을 연구하는 삼성리서치를 찾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미래 준비' 특명에 따라 2019년 5월 삼성리서치 산하에 차세대 통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차세대 통신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새로운 기술 확보에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선제적 연구개발과 흔들림 없는 투자가 필요하다. 더 과감하게 더 치열하게 도전하자"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재도약 기지개 권 '르케쥬'... 반등 열쇠는 '신차·수출'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KGM), 한국지엠 등 중견 완성차 3사가 저마다의 전략으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올해 1~3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50.5% 급증한 12만5212대를 판매했다. 내수 시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3% 증가한 총 6919대, 해외 시장에는 49.0% 증가한 11만8293대를 팔았다.

한국지엠의 호실적은 지난해 3월 출시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때문이다. 1분기 내수 시장에서 5178대를 판매하며 한국지엠의 전체 판매 가운데 74.8%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총 21만6833대가 수출, 국산차 연간 수출 실적 1위에 올랐다.

한국지엠은 올해에도 트랙스 크로스

지엠, 트랙스 크로스오버 돌풍
르노, 佛브랜드 강화·신차 출시
KGM, 수출 확대 흑자 이어가

오버의 인기를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에는 출시 1년 만에 상품성을 강화한 2025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내놔다. 한국지엠은 창원 공장에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연간 25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했다.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 가동률도 최대로 높이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올해 트랙스 크로스오버 생산량이 25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며 "쉐보레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바탕으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서 수년간 부진을 겪던 르노코리아



한국지엠이 출시한 2025년형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레드라인.

사진제공 한국지엠

는 삼성자동차라는 과거 이미지에서 탈피해 프랑스로부터는 정체성을 강화하며 한국 시장에서 새 출발을 예고했다.

르노코리아는 최근 '르노코리아자동차'라는 기존 사명에서 '자동차'를 떼어냈다. 공식 엠블럼도 태풍의 눈 모양에서 르노의 '로장주'로 변경한다.

르노코리아는 사명과 엠블럼 변경을

통해 수입차 이미지를 이식하며 브랜드 고급화에 나선다. 국내 부진의 원인으로 꼽혔던 신차 부재도 정면 돌파한다. 올해 하반기 하이브리드 중형 SUV '오로라1' (프로젝트명)을 출시하고, 2026년까지 매년 국내 시장에 신차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6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

한 KGM은 수출 확대와 신차 출시로 올해도 흑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KGM은 내수 시장의 부진을 뒤엎기 위해 호주, 영국 등으로의 수출 확대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 KGM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9.2% 증가한 1만7114대를 수출했다. 지난해에는 지난해 8월(6920대) 이후 7개월 만에 수출 6000대를 넘어섰다.

KGM은 글로벌 시장 신제품 출시와 판매 네트워크 다변화를 통해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튀르키예에서 토레스 EVX 글로벌 출시 행사를 연 데 이어 뉴질랜드에서도 토레스와 토레스 EVX 시승 행사를 열고 판매 확대에 나섰다. 전기 픽업트럭 등 신차 출시도 예고했다.

KGM 관계자는 "토레스 EVX 글로벌 론칭 확대 등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출 확대는 물론 내수 시장 대응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현대차·기아, 印전용 EV에 현지기업 배터리 탑재

현대자동차·기아 인도 전용 전기차(EV) 모델에 현지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가 최초로 탑재된다.

현대차·기아는 경기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인도 배터리 전문기업 엑사이드 에너지와 인도 전용 EV 차량의 배터리셀 현지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엑사이드 에너지는 인도에서 75년 이상 배터리 사업을 영위해온 인도 납산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 배터리 전문기업 엑사이드가 자동차용 배터리 사업 진출을 위해 2022년 설립한 자회사다. 이르면 올 연말 전기차용 배터리셀을 선형 양산할 계획이다.

협약은 성공적인 인도 전용 EV 출시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

印배터리 전문 엑사이드 에너지와 MOU
개발서 양산까지... 원가경쟁력 강화 맞춘



정덕교(왼쪽부터) 현대차·기아 전동화부품구매사업부 상무, 만다르 브이 데오 엑사이드 에너지 CEO, 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시장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기아

다. 해당 모델은 현지 생산 배터리가 탑재되는 최초의 전기차로 될 전망이다.

현대차·기아는 인도에서 처음 생산되는 차량용 배터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개발에서 양산까지 전 단계에 대해 엑사이드 에너지와 협력한다.

EV에서 HEV까지 전동화 전반에 대한 파트너십을 확대함에 따라 인도 정부의 전동화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도 펼친다

는 계획이다.

세계 3대 완성차 시장인 인도는 자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전동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현지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HEV 배터리까지 영역을 넓혀 현지 전동화 시장을 선점한다.

배터리 현지화에 따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할 뿐 아니라 인도 소비자들에게 자국 생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라는 점이 긍정적 구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사장은 "인도는 향후 전동화 확대가 기대되는 중요한 시장으로 초기에 배터리 현지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향후 인도에서 양산 예정인 전용 EV가 인도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하는 첫 전기차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이 원두가 담긴 포트필터를 커피머신에 장착하고 있다. 사진제공 두산로보틱스

메가커피에 두산로보틱스 '바리스타 로봇'

솔루션 개발 마치고 시범운영
상반기 가맹점주 설명회 개최

두산로보틱스가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가MGC 커피에 협동로봇 솔루션을 공급한다.

두산로보틱스는 8일 메가MGC커피에 협동로봇바리스타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고 메가MGC커피 건대스타점에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메가MGC커피는 국내 284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500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오픈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해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엔하우스와 '자동화를 통한 국내 F&B 프랜차이즈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엔 양사가 협업해 개발한 협동로봇 바리스타 솔루션은 기존 메가MGC커피 매장 내 커피 제조공간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직원 동선을 최소화했다. 그라 인더 및 반자동 커피머신과 연계해 협동로봇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다.

양사는 향후 1~2개 매장에서 추가적인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상반기 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협동로봇바리스타 솔루션 설명회를 진행해 운영결과와 효과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동욱 기자 t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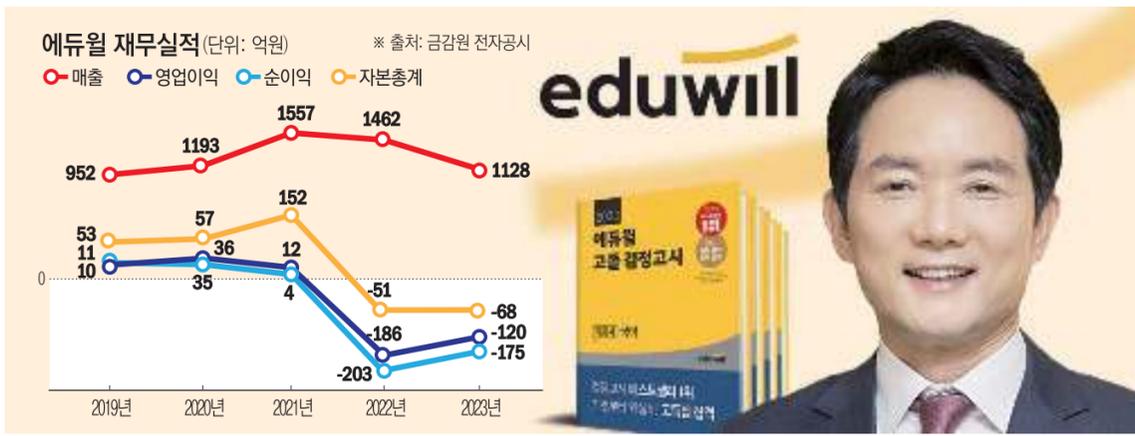
양형남 '창업주의 귀환'... '에듀윌' 자본잠식서 헤어날까

경영악화에 빠진 '교육 강자'

2년 연속 적자에 직원 퇴직 잇따라 작년 영업손실 120억... 소폭 개선 양 회장 지난달 77억 사재 출연 "연내 턴어라운드 실현할 것"

공인중개사 시험 시장 강자인 성인 교육업체 에듀윌이 2년 연속 적자가 발행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주인 양형남 ESG 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이사로 경영 복귀에 나서면서 에듀윌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에듀윌은 지난해 매출 1128억 원으로 2022년보다 22.8% 감소했다. 2010년 이후 꾸준히 외형 성장세를 이어오다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 냉각에 따른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요 위축과 정부의 공무



원 채용 정책 변화, MZ세대의 공무원 선호도 하락 등 시장환경이 이전보다 비우호적으로 변화한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영업손실은 2022년 186억 원에서 지난해 120억 원으로 소폭 개선했다. 직원 이 탈·축소에 따른 급여 감소와 광고비를 대폭 절감한 효과다. 에듀윌 직원 수는 2022년 800명을 웃돌았으나 지난해 337명으로 줄면서 작년 한 해만 400명이 넘

는 직원이 감소했다. 이에 급여로 빠져나간 돈이 335억 원에서 228억 원으로 줄었다. 광고비는 이보다 더 아꼈다. 2022년에는 328억 원을 지출했으나 작년에는 133억 원으로 59.5% 절감했다.

그럼에도 순이익 계정의 상황은 좋지 않다. 외부 차입의 성격이 장기보다 단기차입금 규모가 더 커지면서 이자 비용이 2022년 23억 원에서 지난해 43억 원으로

늘어난 결과다. 이 때문에 영업손실이 60억 원가량 줄었음에도 순손실은 2022년 203억 원에서 30억 원가량 줄어든 175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에 이어 지난해 대규모 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에듀윌의 재무 안정성은 작년 1월 70억 원의 유상증자로 자본을 확충을 했음에도 더 나빠졌다. 에듀윌의 결손금은 2022년 -157억 원에서 지난해 -331억 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다. 이에 회사의 자본총계는 -51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증가했다.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68억 원 더 많다는 의미다. 사내 보유 한 유동자산은 298억 원에서 249억 원으로

로 축소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보증금, 대출채권이 차지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4억여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 에듀윌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양형남(사진) ESG 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이사로 경영 일선에 복귀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양 회장의 복귀는 2016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에듀윌은 이후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그동안 양 회장은 사회공헌 활동에만 진력해 왔다. 양 회장은 대표이사 복귀와 더불어 사재를 출연해 에듀윌의 자본 확충에도 나섰다. 양 회장이 3월 현물 출자한 사재는 77억여 원이다.

에듀윌은 양 회장의 복귀를 계기로 △ 수익성이 낮은 학원 폐원 및 아이템 철수 등 손익 개선 노력 △ 조직구조 합리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 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노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2023년 9월부터 비용 절감,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다가 2024년 들어서는 월간 영업이익이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에듀윌의 턴어라운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물[水] 오르다

산업용 수처리 전문기업에서 **종합환경기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환경기업에서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초순수 생산



토털 수처리 솔루션



폐수재이용/해수담수화



연구 및 기술개발

HAS 한성크린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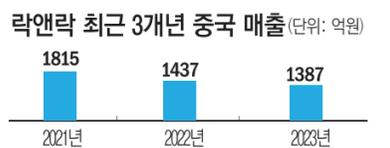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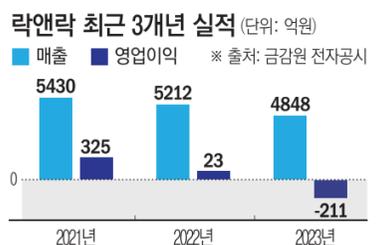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 빌딩 6층, 17층 02-6371-3900 hasco@hscleantech.com

관계사



중국 사업 찬바람에 실적 '악화일로' 락앤락 "온라인·효율화로 경쟁력 업"

작년 매출 4848억... 2년째 감소 중국 법인 4곳 중 2곳 연내 정리 "해외 신규시장 개척·수출 확대"



락앤락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락앤락 사업의 핵심 국가인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락앤락은 올해 중국 법인 4곳 중 2곳을 정리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락앤락의 지난해 매출액은 4848억 원으로 전년(5212억 원) 대비 6.98% 줄었다. 2021년 54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다. 이 기간 영업이익 역시 △2021년 325억 원 △2022년 23억 원 △2023년 -211억 원으로 악화했다.

실적 악화의 핵심 요인은 국내 매출과 중국 시장의 부진이다. 락앤락의 전체 매출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60%에 육박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매출은 1471억 원에서 1379억 원으로 6% 감소했고, 중국 매출도 1437억 원에서 1387억 원으로 3% 빠졌다.

락앤락의 지난해 중국 사업 실적을 보면, 매출비중이 가장 큰 베타리저웨어(텀블러·물병) 매출(722억 원)이 6% 넘게 줄었다. 보관용기(334억 원)는 4.8%, 쿡웨어(79억 원)는 13.6% 내려앉았다.

이에 지난해 락앤락 상해법인의 당기순손실은 121억 원을 기록했고, 북경법인과 심천법인 역시 각각 34억 원, 35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락앤락은 악화하는 중국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 결국 중국 현지 영업법인 중 북경과 심천 두 곳을 연내 정리하기로 했다. 락앤락 관계자는 "중국지

역의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심천법인과 북경법인을 청산하고, 상해법인으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사업이 실적 악화 늪에 빠진 반면 베트남 시장은 성장세다. 2022년 803억 원 수준이었던 베트남 실적은 지난해 4% 성장하며 매출이 832억 원으로 늘었다. 효자 상품은 텀블러다. 락앤락이 베트남 현지에서 텀블러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해당 사업부문 매출이 지난해 14% 성장했다. 주요 판매 채널은 온라인이다.

락앤락은 올해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업 효율화와 온라인 영업망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은 오프라인이 쇠퇴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판매 영업망을 강화한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에서 락앤락의 보관용기 판매순위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락앤락 관계자는 "올해 지속적인 효율화 관리와 마케팅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성장세를 타고 있는 온라인 사업과 해외 신규 시장 개척, 수출 사업 확대 등으로 실적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한화 이글스의 별칭〉

‘마리한화’ 처럼... 티빙 “구독 역전, 플레이 볼!”

티빙, KBO 중계권 확보 재기 발판 드라마 콘텐츠 5연속 흥행 성공에 OTT중 유일하게 이용자수 증가세 이달 무료 이벤트 종료 시험대 올라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이달 한국프로야구(KBO) 무료 중계 이벤트를 끝으로 시험대에 서게 된다. 티빙이 5월 유료 전환 이후에도 구독자를 묶어두는 ‘락인 전략’을 펼쳐 넷플릭스와 양강 구도를 공고화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분기 OTT 업계가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한 가운데 티빙이 유일하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티빙은 1분기 내내 일 평균 활성화 이용자수(DAU)가 증가했다. 티빙의 1월 평균 DAU는 157만 명으로 전월(130만 명) 대비 21% 상승했다. 2월에는 165만 명, 3월 170만 명으로 각각 전월 대비 5%, 3% 증가했다. 반면 넷플릭스의 1월 평균 DAU는 307만 명으로 전월 대비

3% 감소했다. 2월과 3월에는 DAU가 282만 명(-9%), 257만 명(-10%)으로 내림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OTT업계 부진 속에서도 티빙이나 홀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콘텐츠 경쟁력 강화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추진한 티빙은 무료로 제공되는 실시간 채널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이재, 곧 죽습니다’를 시작으로 ‘환승연애3’, ‘LTNS’, ‘크라임씬: 리턴즈’, ‘피라미드게임’까지 3개월 만에 5개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며 이용자를 끌어모을 수 있었다.

특히 티빙은 법인 출범 이후 지속적인 적자 속에서도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50억 원을 투자해 KBO 중계권에 투자하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그 결과 티빙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넷플릭스와 함께 국내 OTT 시장을 주도하는 신흥강자로 떠올랐다.

단, 변수는 유료중계로 전환되는 5월부터다. 5월부터는 프로야구 중계를 보기 위해서는 월 5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유료화 전환 이후 제공하는 콘텐츠 퀄리티가 티빙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티빙 측은 정규 시즌에 야구 경기가 매일 진행되는 만큼 티빙에 접속하는 이용자수가 상반기에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이라고 관측하는 반면 유료화 이후 신규 유입된 이용자를 잡지 못할 경우 적자 폭은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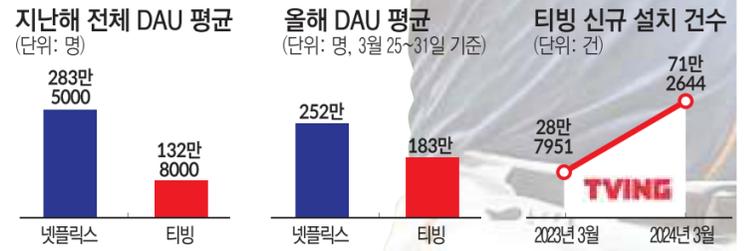
OTT업계 관계자는 “프로야구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많은 만큼 지금과 같이 송출 시스템 조작 실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유료화 이후 이용자들이 (불법 사이트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여성향 콘텐츠가 많은 티빙에서 프로야구를 주로 보는 2030세대 남성들은 프로야구가 없으면 구독을 해지할 이용자만큼 돈을 주고 볼만한 스포츠 콘텐츠가 지속해서 나와야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티빙은 하반기에도 야구 중계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라인업을 확대하고 검증된 오리지널 콘텐츠를 내세워 신규 이용자를 확보해 넷플릭스를 추격하겠다는 전략이다. 티빙은 KBO 중계 외에도 분데스리가(축구), UFC(격투기), 호주오픈, 롤랑가로스(테니스)

도 중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카타르에서 진행되는 ‘2024 AFC U23 아시안컵 카타르’의 일부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다.

티빙 관계자는 “2, 3분기에도 티빙 성장에 대한 신뢰감을 이어갈 다채로운 장르의 오리지널 라인업과 스포츠, 독점 콘텐츠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 리소스 제공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 DAU: 일간 활성화 이용자수
※ 출처: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한화 이글스 류현진 투수

“고객님, 이 요금제 어떠세요?”... LG U+ ‘익시’ 기반 AI 상담비서 개발

자체개발 AI기술 ‘AX 혁신 가속’ ‘챗 에이전트 4종’ 상반기 출시 가입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답변 모바일·AICC·IPTV 영역 확대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인 ‘익시(IXI)’ 기반의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8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익시 기반의 ‘챗 에이전트(Chat Agent)’ 플랫폼을 소개했다. 챗 에이전트는 기존 챗봇보다 더 발전된 AI 기술 기반 상담서비스이다.

LG유플러스는 △U+상담 에이전트 △장애상담 에이전트 △유독 AI 상품 추천 에이전트 △U+비즈마켓 솔루션 안내 에이전트 등 4종의 챗 에이전트 서비스를 우선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너켓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챗 에이전트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요금제 상담, SOHO(소상공인) 기업 고객 상담을 위한 챗 에이전트도 출시할 예정이다.

챗 에이전트를 시작으로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대부분의 사업 영역에서 AI 에이전트 기술을 통합

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챗 에이전트는 그 첫 번째 주자다. 성준현 AI-데이터프로덕트 담당(상무)은 “챗 에이전트가 익시 기반 서비스의 첫 상용화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챗 에이전트를 시작으로 모바일, AICC, IPTV, 구성원 업무 지원 등 업무 전 영역을 혁신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본격적인 AI 비서 시대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챗 에이전트는 챗봇과 달리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 기술을 활용해 시나리오에 없는 전문적인 질문과 명령도 이해할 수 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챗 에이전트 기술을 직접 시연하며 기존 챗봇보다 기술적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성준현 상무는 “챗 에이전트는 유플러스 서비스에 데이터가 최적화 된 것이 장점”이라면서 “자사 데이터와 LLM 기술을 사용해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챗GPT를 사용했던 기존 챗봇 대비 환각 효과를 최소화해 없애려는 수준까지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생성형 AI 모델 ‘익시젠(IXI-GEN)’을 챗 에이전트 플랫폼에 적용하면 고객 상담 이력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사람과 같이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로밍 요금제를 알려줘”라고 문의하면 방문 예정인 국가와 기간, 과거 사용 내용 등 정보를 토대로 “OO 고객님, 일본 4일 여행 시에는 A요금제를 추천드려요. 가장 인기가 좋은 요금제는 B요금제지만, OO님은 주로 비즈니스 출장이 많아 데이터가 넉넉한 A요금제가 좋을 것 같아요”와 같은 답변을 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챗 에이전트 플랫폼 적용으로 상담사 연결로 전환되는 비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이번에 출시한 챗 에이전트를 사내 업무나 자사의 서비스에 우선 적용해 AX 혁신을 가속하는 한편, B2B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도 준비 중이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연구비 제 때 안 줘”... 연구현장 불멘소리에 단속 나선 정부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삭감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삭감된 연구비조차 제때에 지급되지 않으면서 연구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의 연구비 집행 압박에 나섰다.

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비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늘어나면서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의 연구비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 국립대 교수는 “1월에 지급될 연구비가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예산 삭감에 연구비 지연까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의 과제비 집행이

예상 시점보다 뒤늦게 집행되는 사례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올해의 경우 R&D 예산 후폭풍 직격탄이라는 점에서 지난달부터 연구현장의 불만은 커진 상황이다.

연구현장의 불만이 커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의 연구비 집행 압박에 나섰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을 방문해 연구관리전문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처별·전문기관별 연구비 집행현황을 공유하고,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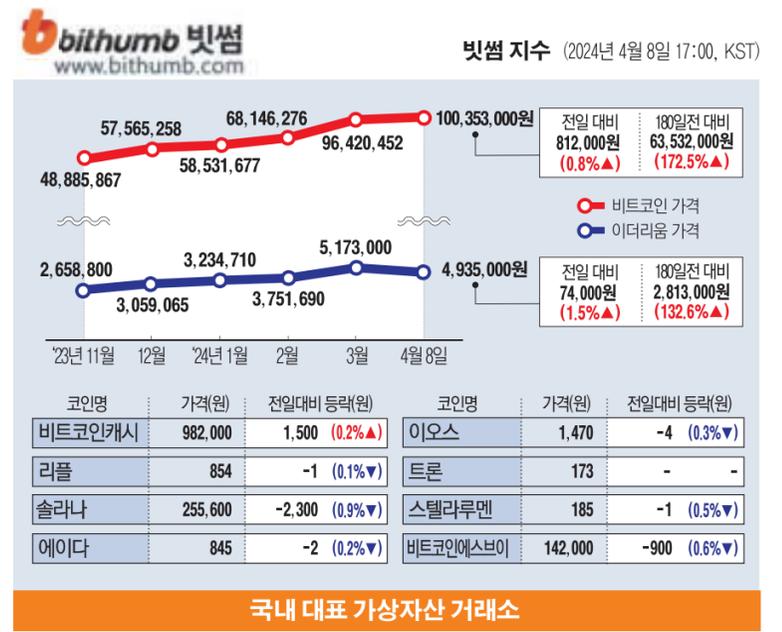
간담회에는 연구재단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보건의산업진흥원 등 14개 전문기관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류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에 수행 중인 과제(계속과제)들에 대한 연구비 조정 등으로 일부 집행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구자들이 약속된 연구비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장들이 직접 챙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계에서는 올해 R&D 예산안이 삭감 이슈로 인해 최종 확정지 늦어지면서 신규 정부과제 선정 자체도 늦어지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폐암약 내성 잡아라” K-바이오 4세대 치료제 개발 속도

현재 처방되는 3세대 치료제 장기 복용하면 추가 돌연변이 브릿지바이오·테라팩스 등 개발 후보물질 임상 진행 중 “기존 치료제 내성 극복하고 뇌 전이 환자에 새 옵션 될 것”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4세대 폐암 신약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4세대 폐암 신약은 기존 치료제 내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브릿지바이오·테라팩스, 테라팩스, 보로노이, HK이노엔, 한독 등이 4세대 폐암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폐암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치료

제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표적치료제다. 최근 국내서 아스트라제네카타그리소와 유한양행 렉라자가 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되며 3세대 치료제 처방이 활발하다. 다만 3세대 치료제 역시 내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항암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암세포가 살아남기 위해 추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잘 듣지 않는다. 1~3세대 치료제는 내성 문제를 완벽히 극복하지 못했다.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4세대 폐암 치료제 개발에 속속 뛰어든다. 브릿지바이오·테라팩스는 4세대 폐암 표적치료제 후보물질 BBT-207를 개발 중이다. 지난해 말 삼성서울병원에서 임상 1/2상 첫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BBT-207은 비소세포폐암환자에서 3세대 EGFR 치료 이후 내성으로 나타나는

4세대 폐암 신약 개발

기업명	후보물질	임상단계
브릿지바이오·테라팩스	BBT-207	1/2상
테라팩스	TRX-221	1/2상
보로노이	VRN11	1상
HK이노엔	IN-119873	전임상
한독	HDBNJ-2812	전임상



다양한 돌연변이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치료제다. 회사에 따르면 비임상에서 C797S 포함 이중 돌연변이를 비롯한 삼중 돌연변이에 대해 항종양 효과와 말기 비소세포폐암 치료에서 중요한 뇌전이억제 능력을 보였다. 테라팩스는 올해 1월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인 TRX-221의 임상 1/2상을 승인받았다. TRX-221은 1~3세대 치료제의 내성 돌연변이를 저해하는 4세대 폐

암 후보물질이다. 앞서 테라팩스는 TRX-221을 투여한 EGFR 야생형 종양 이식 마우스 모델에서 기존 EGFR 저해제 투여군 대비 효과적인 종양 억제와 뇌 투과율을 확인했다. 보로노이는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신약 파이프라인 VRN11에 대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 대상의 첫 투약을 완료했다. VRN11은 전임상시험에서 EGFR

C797S 내성 돌연변이뿐 아니라 L858R, Del19 등의 변이에도 높은 효과와 뇌 투과도를 나타냈다. HK이노엔은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L858R 변이 환자를 위한 4세대 표적 항암치료제 IN-119873을 연구한다. 한독은 3세대 치료제 오시머티닙에 의한 내성을 극복하는 차세대 EGFR 돌연변이 분해 폐암 치료 신약물질 HDBNJ-2812을 연구 중이다. 제약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4세대 치료제는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다. 약을 먹고도 완치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내성으로 약이 듣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다. 또 비소세포폐암은 대부분 뇌로 전이되는데 현재 뇌 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 4세대 치료제는 뇌 전이 환자에게도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대통령실·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한 적도 계획도 없다”

의사협회 제안에 가능성 일축 2000명엔 “열린 마음 임할 것”

대통령실과 정부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에 대한 1년 유예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대한의사협회 제안에 대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

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희한테 와야 거기에 대해 논의할지를 검토하겠다”며 특정 시한을 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대별 정원)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가 중단시키는 것은 전혀 없고, 그것은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일안을)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

을 뿐”이라며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물밑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일부 전공의들로부터 비난받는데 대해서는 “저희는 박단 위원장이 용기 있게 대화에 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의료계) 안에 어떤 자정 기능이 있겠죠”라고 말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역시 같은 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1년 유예가 가능하며 의대 증원 축소 주

장에 대해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보도됐으나,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민수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전 브리핑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검토해서 결정할 숫자”라고 설명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r@·김지영 기자 jye@

골육종 전임상 데이터 포스터 메드팩토, 美 암연구학회 발표

메드팩토는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4)에서 골육종 대상 백토서립 단독요법의 임상 과제에 대한 전임상 데이터를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임상 데이터는 미국 케이스웨스턴 리저브의과대학과 메드팩토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골육종은 뼈 또는 뼈 주변의 연골 등 유골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골육종은 환자 중 25~50%가 항암 치료 중에 폐와 뇌 등으로 전이가 진행된다. 발표에 따르면 연구진은 임상에서 TGF-β 억제제인 백토서립이 TGF-β 신호 전달을 차단하고 골육종 종양 세포에서 c-Myc 발현을 억제해, 생체 내 종양의 성장을 매우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Dexcom G6

고혈당을 실시간으로, 저혈당을 사전에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시스템 **덱스콤 G6**

- ✓ 고혈당, 저혈당 알림과 경고!
- ✓ 손가락채혈(BG)을 통한 보정이 필수적이지 않음
- ✓ 혈당값을 5분마다, 하루 288번 스마트장치로 전송
- ✓ 최대 5명까지 연속 당수치 공유 가능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실구매가 100% 지원

개인용체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24개월 이상의 당뇨병 환자의 피부 표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세포 간질액에서 측정된 포도당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포도당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로 자가검사용으로 집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내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농도 측정 결과 수집을 위해 사용한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010-18-0031 (유효기간 24.11.12)

N 덱스콤 G6

고물가에 '편의점 마감할인 제품' 찾는 알뜰 소비족

최근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소비 기한이 압박해 가격저렴해진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소비자뿐 아니라 편의점 입장에서 폐기율을 낮춰 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성에도 도움 돼 일거양득인 판매 방식으로 꼽힌다.

8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 따르면 GS25 마감할인 상품의 지난 달 매출은 작년 12월 대비 670% 증가했다. 마감할인의 이용 고객은 20대 38%, 30대 34%, 40대 16% 순으로 2030대가 70%를 넘게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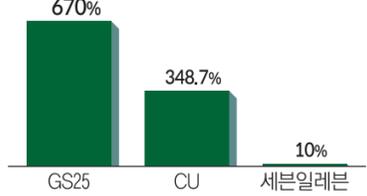
지난해 11월 말 론칭한 마감할인은 GS25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우리동네GS'에서 소비기한이 임박한 신선식품을 최

런치플레이션에 할인 상품 인기 GS25 석달새 해당 매출 670% ↑ 2030대 이용 70% 넘게 차지 각사, 전용 앱서 픽업 주문도 라스트 오더 도입 후 폐기율 ↓

대 4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서비스다. 소비기한 만료 시점 기준으로 3시간~45분 전으로 임박하게 되면 우리동네GS 앱의 마감할인 메뉴에서 할인 상품을 픽업으로 주문 가능하다.

마감할인 제품이 큰 인기를 누리는 것은 최근 고물가로 인해 '런치플레이션(점

편의점 3사, 소비기한 임박 상품 매출 신장률 ※2023년 12월 대비 2024년 3월 매출 신장률 ※출처: 각사



심식사+인플레이션)이 계속되자 편의점 간편식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와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도 2020년부터 폐기 임박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CU는 자체 앱 '포켓 CU'의 '나만의 온

라인 점포' 메뉴를 통해 그린 세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맹점주가 포켓 CU 내 본인의 점포에 상품별 할인율을 지정해 등록하고, 점포별 맞춤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 CU 그린세이브를 통한 올해 3월 매출은 작년 12월 대비 약 349% 늘며 세자릿수 성장세를 이뤘다.

세븐일레븐의 라스트 오더 매출 역시 같은 기간 10% 신장했다. 세븐일레븐은 고객들의 편의와 구매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배달서비스까지 범위를 넓혔다. 라스트 오더 배달 서비스는 라스트 오더 앱에서 내 주변 점포를 찾은 뒤 '배달' 메뉴를 선택 후 상품을 주문하면 된다. 배달 주문 시 유통기한 임박 상품과 함께 일반 상품도 주문할 수 있어

원스톱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 기한 만료에 다른 제품은 고물가 속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비자뿐 아니라 편의점도 폐기율 감소로 재고 관리와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GS25는 마감할인 활용 우수점포 100 곳을 살펴본 결과 등록된 소비 기한 임박 상품이 70% 이상 판매됐다고 밝혔다. 신선식품의 폐기율은 1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라스트 오더 도입 이후 세븐일레븐 라스트 오더 제품의 누적 판매량은 약 400만 개로, 이에 따른 폐기절감액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현호 기자 m2h@



롯데홈쇼핑, 명동서 '벨리곰' 팝업 롯데홈쇼핑이 내달 31일까지 서울 인기 관광지 명동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소품 '나우인명동'에서 인기 캐릭터 '벨리곰'의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는 한류문화 상품 수요가 높은 명동에서 팝업스토어를 기획해 글로벌 팬들과 소통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마술사, 피에로 등 서커스 단원 분장을 한 벨리곰 조형물을 전시하고 열기구에서 타서 벨리곰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상품 한복 키링, 서커스 스티커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쿨츠 70여종을 최대 70% 할인해 판매한다. 사진제공 롯데홈쇼핑

석촌호수에 '포켓몬 도시' 세운다

'포켓몬 타운 위드 롯데'

신동빈 "콘텐츠 사업 강화" 주문 10개 계열사 참여 첫 프로젝트 아트별론 전시·미니게임 마련 등 잠실 일대 포켓몬 콘텐츠로 변신

롯데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콘텐츠 비즈니스를 강화한다. 롯데지주는 26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몰에서 '포켓몬 타운 2024 위드 롯데'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롯데지주를 비롯해 롯데데올산, 롯데월드, 롯데GRS, 롯데백화점, 호텔롯데 등 10개 계열사가 참여해 그룹 전사 차원으로 진행되는 첫 번째 콘텐츠 비즈니스 프로젝트다.

행사 기간 서울 잠실 석촌호수에 라프라스와 피카츄 대형 아트별론을 전시하고 롯데월드타워 아레나 잔디광장에는 포켓몬 관련 미니게임과 퍼레이드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잠실 일대를 포켓몬 콘텐츠로 꾸민다. 롯데그룹은 포켓몬스터가 27년간 전세계에서 사랑 받아온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인 만큼 많은 고객이 롯데월드타워와 몰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월드, 롯데칠성음료, 롯데GRS, 호텔롯데에서도 다양한 포켓몬 IP를 활용한 라이선스 상품을 단독 출시한다. 롯데컬처웍스와 롯데콘서트홀에서는 포켓몬 25주년 기념 애니메이션 영화 '포켓몬스터: 성도 지방 이야기, 최종장'의 극장 개봉과

포켓몬 애니메이션 콘서트를 기획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롯데는 다양한 사업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 롯데만 할 수 있는 콘텐츠 비즈니스를 발굴하기 위해 롯데지주 내에 전담 조직을 꾸렸다. 롯데지주 ESG경영혁신실에 속해 있는 콘텐츠 비즈니스 담당 조직은 각 계열사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캠페인 설계,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신규 콘텐츠 사업 모델 발굴 등의 업무를 맡는다. 콘텐츠 비즈니스를 롯데지주에서 담당하면서 콘텐츠를 활용한 여러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부터 기존 사업영역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사업모델 구상이 가능해졌다.

콘텐츠 IP 소유 기업 입장에서도 롯데와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식품, 유통, 문화, 서비스 등 롯데의 폭 넓은 사업을 기반으로 캐릭터 협업 식음료 상품, 팝업스토어, 공연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걸친 통합마케팅 전략이 가능하다. 롯데는 국내외 IP 소유 기업들과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IP 개발 및 롯데월드타워, 스테디셀러 브랜드 등 그룹 내 다양한 IP들을 활용한 비즈니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전 세계 우수 콘텐츠 IP 기업들과 협업하며 콘텐츠 비즈니스를 강화해달라"며 "롯데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장기 지속 가능한 모델 개발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개그맨의 유머코드, 라이브쇼핑에 먹혔죠"

인터뷰

양주영 쇼핑호스트

신세계라이브쇼핑 쇼호스트 겸 코미디빅리그 신인 개그맨 출신



양주영 신세계라이브쇼핑 쇼호스트가 최근 서울시 성동구 신세계라이브쇼핑 본사에서 자신의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라이브쇼핑

"코미디빅리그(코빅) 신인 개그맨이자 마지막 개그맨, 현재 신세계라이브쇼핑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양주영입니다" 최근 서울시 성동구 신세계라이브쇼핑 본사에서 만난 양주영 쇼핑호스트(쇼호스트)는 본인 자신을 이같이 소개했다. 양 쇼호스트는 2021년 신세계라이브쇼핑 2기 공채 쇼호스트이자 2023년 tvN 코미디빅리그로 데뷔한 개그맨이다. 하지만 데뷔하자마자 코빅이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현재 모바일 라이브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쇼호스트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양 쇼호스트는 "모바일 라이브 방송은 신세계라이브쇼핑의 TV홈쇼핑과 다르게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오면서 소통을 많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고객 질문에 대해 바로바로 대응하거나 방송 중에 재미 요소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은 현재 한주에 1~2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그맨과 쇼호스트가 진행과 연기, 재미라는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그맨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쇼호스트로 활동하며 재치, 순발력, 유머 감각을 키웠다.

양 쇼호스트는 "개그맨들은 각자 자기만의 특화 분야가 있다"면서 "연기를 잘하거나, 말과 진행을 잘하거나 혹은 아이디어가 좋은 개그맨이 있는데, 저는 진행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쪽에 특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바일 라이브쇼핑은 유쾌하면서 재밌게 방송할 수 있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쇼

호스트로서 개그맨의 재치나 유머 코드를 활용했고, 쇼호스트를 하며 배웠던 순발력, 애드리브를 개그에서도 활용하게 됐다"고 했다.

개그맨이라는 그의 특징은 성과로 이어졌다. 양 쇼호스트는 올해 1월 갤럭시S24 사전 예약 방송에서 7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특히 분장과 연기에 강점을 가진 그는 모바일 라이브쇼핑에서 이를 적극 활용 중이다. 배우 이경영 씨를 따라하거나 게임 기기 판매 방송일 경우 게임 캐릭터 분장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개그맨 준비하면서 썰던 코너나 개그를 모바일 라이브 할 때 가져와서 활용한 적도 많고, 이경영 배우 분장을 하고 나와서 성대모사하며 쇼핑라이브를 진행했던 적도 있다"며 "플레이스테이션5 판매 방송을 진행했을 때는 '갓 오브 워(God of War)' 게임 캐릭터로 분장을 해서 플레이스테이션 본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웃었다.

양 쇼호스트는 가전 제품 방송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엔 가전에 이어 여행 상품 판매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여행 상품 외에도 뷰티 상품 등으로 모바일 라이브 방송 상품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싶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동시에 신세계라이브쇼핑의 '톱 쇼호스트'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다. 유승호 기자 peter@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부문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최적화 기술 1위 → 12,312,000 가지 스펙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문의: 1544-8070 www.banggolf.co.kr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금융 최우수 은행 賞 3관왕 수상

ASIAMONEY
Best Bank For SMEs South Korea
아시아머니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Global Finance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The Asian Banker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아시아뱅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세계, IBK기업은행에 집중하다

변화를 이끄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11만전자 꿈 향해...” 삼성그룹주 펀드도 ‘함박웃음’

(52주 신고가) 8만6000
(종가) 8만4500

삼성전자 주가 또 ‘신고가’

‘이게 다 삼성전자 덕분이다.’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에 삼성그룹 계열사를 담은 ‘삼성그룹주 펀드’ 투자자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반도체 사업이 살아나면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주가 10만 원)를 향해 가고 있고,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프로그램 등 각종 호재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주 펀드의 수익률이 동행할 것으로 본다. 포트폴리오 내 삼성전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8일 삼성전자는 장 중 8만6000원을 찍었다. 52주 신고가다. 증권사들은 1분기 ‘깜짝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에 대해 부진했던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해소하며 실적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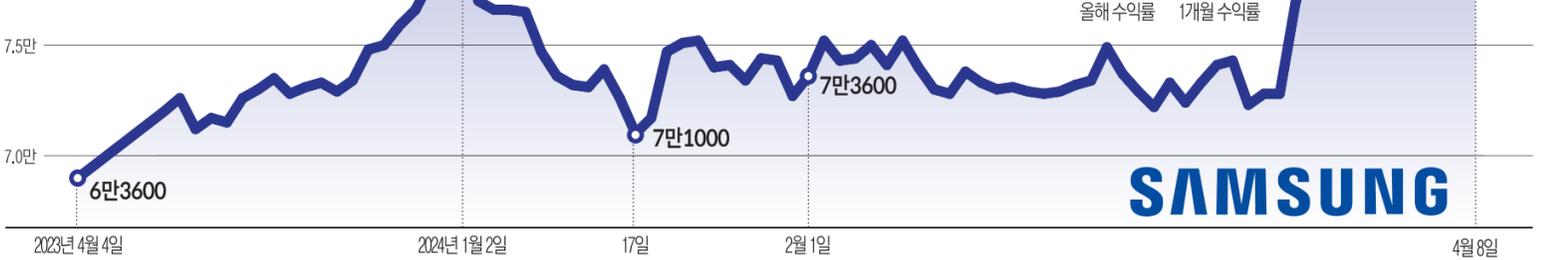
◇삼성그룹주 펀드 이름값 하네 =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용 중인 삼성그룹주 펀드 26개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5.86%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호텔신라 등 계열사에 빠짐없이 투자하고 있는 삼성그룹주 펀드는 올 들어 여러 호재에 둘러 싸여있다. 최근 한달 수익률도 7.03%였다.

같은 기간 기타그룹주펀드는 각각 2.75%, -0.17%였다.

이유 있는 성적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그룹(17개 상장사 중 멀티컴퍼스, 삼성FN리츠 제외)의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주가 (단위: 원, 종가 기준)

* 출처: 연합인포맥스, 한국거래소



반도체 바닥론·밸류업 등 호재 1분기 ‘깜짝 실적’ 등 성장 기대 금융 계열사도 장밋빛 실적 전망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4조8261억원)보다 46.67% 증가한 9조4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실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1조 원, 영업이익 6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31.3% 뛰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조5700억 원)을 넘었다.

‘반도체 바닥론’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연초 이후 8% 가량 올랐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잇달아 올리면서 ‘10만전자’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신증권은 “올 2분기(4~6월) HBM 공급 기대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 기조가 레거시 제품 수

요 증대로 확대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 10만 원을 제시했다. 유진투자증권은 10만 7000원을 예상했다.

삼성그룹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를 쓴 데 이어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단일공장 기준 최대 규모 생산능력을 자랑하는 4공장의 본격 가동과 신규 의약품 효과 등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엔 5공장 완공 등 추가적인 성장동력도 더해진다.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18조 원대(하나증권 예상)의 수주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들도 장밋빛 실적이 예상된다.

◇‘11만전자’ 꿈 아니다 = 지금 삼성그룹주 펀드를 사도 될까. 관건은 펀드 내비

연초 이후 주가 8%가량 올라

삼성주 펀드 올 수익률 5.86%

계열사 약재시 타격 유의해야

중이 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의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김운호 연구원은 “반도체는 가격 반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서 분기별 수익성은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부진했던 HBM도 점차 가시권에 진입하고 하이엔드 시장으로 안정적 진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낸드(NAND)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환입이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은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을 두고 회복을 넘어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투자 의견 ‘매수’와 목

표 주가 10만 5000원을 유지했다.

다만, 그룹주 펀드의 ‘명암’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룹주 펀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유행처럼 등장했다. 국내 대기업의 성장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다. 그룹주 펀드에 투자하면 저절로 포트폴리오가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새 국내 대기업들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미래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수익률이 들쭉날쭉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사 주식 간 상관관계가 높아져, 한 군데 계열사에서 약재가 터지면 다른 곳도 타격을 입어 그룹 전체가 휘청이는 일도 있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펼쳐질 때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효숙 기자 ssook@

태영건설 워크아웃 속도낸다... 현장실사도 마무리 단계

이르면 이달말 기업개선계획 결의 채권단 설명회 방식 등 최종 검토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조만간 채권단 설명회를 열고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위한 충분한 설명 절차에 돌입한다. 빠르면 이달말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통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8일 산에 따르면 채권단 설명회를 진행하기 위해 방식과 대상을 놓고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이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협의회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협의회를 진행하기 전에 채권자 앞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설명회 개최를 준

비중”이라며 “방식이나 대상을 놓고 어떻게 해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은은 1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1차 채권단협의회를 앞두고 한 차례 채권자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소집 통보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 계획 설명 등이 이뤄졌다.

이번에도 3차 채권단협의회를 통한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앞두고 산은은 채권자 설득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워크아웃 개시 절차와 마찬가지로 기업개선계획 이행 등 공동관리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1월 3일 진행된 채권자 설명회처

럼 전체 채권단을 대상으로 할지, 1월 5일 열린 은행권 채권단 회의처럼 일부 주요 채권단을 대상으로 진행할지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설명회 방식도 어떻게 진행해야 효율적일지 내부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진행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채권단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태영건설과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단에 사업장 처리 방안, 추가 자금 지원 등을 놓고 일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1월 11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

한 후 실사법인을 선정해 PF 사업장과 태영건설의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산은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현장 실사는 마무리 수순이다. 현재 최종 보고서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채권자 설명회 이후 이르면 이달말 채권단협의회를 통보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별 채권자별로도 충분한 검토와 의결절차가 필요한 만큼 일정 기간을 두고 1·2차 채권단협의회처럼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받게 된다. 기업개선계획이 결의되면 이후 한 달 이내로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절차를 진행한다.

이재영 기자 lry0403@



“목돈 일시에 납입 노후 준비하세요”

삼성생명 ‘뉴일시납 연금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삼성 인터넷뉴(NEW)일시납 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 인터넷NEW일시납연금보험’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 가입 후 5년간 3.8%의 확정이율을 적용하고 이후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총칙 시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과 함께 매월 일정 사업비와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후 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10년이 되는 시점에 유지보너스를 제공한다. 유지보너스는 중도해지나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정상 유지 상태에서 5년 시점에 기본보험료의 2%, 10년 시점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0.5%를 지급한다.

이 상품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5년 후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가입 나이는 20세부터 최대 85세이며, 연금지급 개시 나이는 45세부터 90세까지 선택할 수 있다.

정상원 기자 jsw@

회사채 수요예측에 10.3조... 목표액 5배 ‘훌쩍’

3월 참여율 급증... 작년보다 2배↑ 국채·특수채·통안증권 증가 영향

지난달 회사채 수요예측에 목표금액의 5배가 넘는 자금이 쏟아졌다.

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4년 3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채권 발행규모는 전월 대비 4000억 원 증가한 71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채와 특수채, 통안증권이 늘어난 영향이다.

회사채 발행은 전월 대비 5조 6000억 원 감소한 9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1조 9600억 원(총 25건)으로 전년 동월(1조 7850억 원)보다 1750억 원 증가했다.

수요예측 참여금액도 10조 3400억 원으로 전년 동월(5조 4060억 원)보다 4조 9340억 원 증가했다. 수요예측 금액 대비 수요예측 참여금액을 나타내는 참여율은 527.6%로 전년 동월(302.9%) 대비 224.7%포인트(p) 늘었다.

등급별 참여율은 AA등급 이상은 498.2%, BBB등급 이하는 111.5%를 기록했다. 특히 A등급은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금리 메리트가 높아지며 전년 동월(217.6%) 대비 521.5%p 증가한 739.1%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수요예측 미매각은 A등급에서 3건, BBB등급 이하에서 1건 발생했다.

3월 장외채권거래량은 금리 하락 등으로 전월보다 92조 9000억 원 증가한 452

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일평균 거래량은 전월 대비 3조 7000억 원 늘어난 22조 6000억 원이다.

개인은 국채, 기타금융채(여전채),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되며 3조 6000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총 3조 4000억 원 순매수했다.

3월 말 기준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은 CD 발행 금리 하락과 머니마켓펀드(MMF) 자금 유입 증가에 따른 수요 등으로 전월 대비 5bp(1bp=0.01%p) 하락한 3.64%를 기록했다.

3월 중 적격기관투자자(QIB) 채권 신규 등록은 3건으로, 1조 931억 원을 기록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상반기〉

디지털 금융 확산에 은행 채용 반토막... 하반기도 '좁은문'

4대 은행 상반기 470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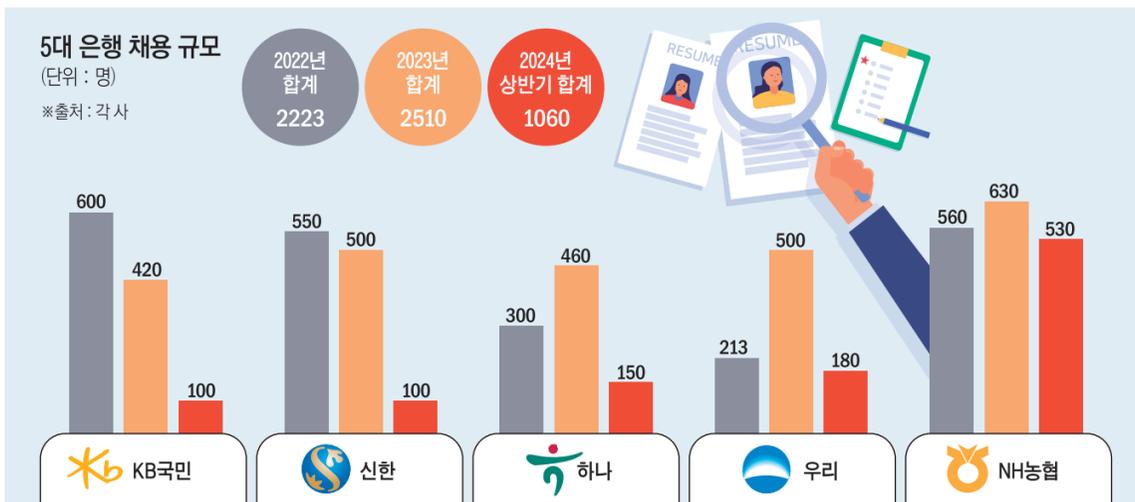
비대면 업무 확대로 영업점 축소 전문 인력 수시채용도 크게 늘어

ELS 자율배상으로 실적악화 예상 인건·관리비 등 선제적 긴축경영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에 비해 반토막 수준에 그쳤다. 비대면 업무 확대에 은행들이 영업점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상시 채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 규모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 상반기 채용 규모는 5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00명)보다 47%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150명) △KB국민은행(100명) △신한은행(100명) 순이다.

시·도 단위로 지역 인재를 뽑는 NH농협은행이 유일하게 지난해(480명)보다 10% 늘어난 530명을 뽑는다. 농협은행



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상반기 채용 규모는 1060명으로 작년 상반기(1480명)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비대면 영업 확대에 따라 점포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개 채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점포수(출장소 포함)는 2818개로, 4년 전인 2019년 말(2117개)과 비교해 20.1%(701개)가량 줄었다.

오히려 지난해 대규모 채용이 이례적이

었다는 반응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돈 잔치' 발언 등 정부의 사회공헌 압박이 이어지면서 채용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신입직원 채용은 수십 년간 지출비용이 늘어나는 것과 같다"면서 "점포가 감소하는 만큼 필요한 인력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지난해의 경우 정부의 압박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ICT 등 전문인력의 수시채용을 늘리

고 있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공개채용과 함께 디지털·ICT 수시채용을 진행했다. 뱅킹서비스 개발, 모바일·웹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엔지니어링 등 기존 전문분야에 인프라·이력 처 설계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농협은행은 상반기 공개 채용을 일반 분야와 IT 분야로 나눠서 실시했다. 하나은행도 일반, 디지털·ICT, 지역인재, 디자인·크리에이터 등 4개 부문으로 모집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 일반 외에 디지털 금융 분야를 디지털과 IT로 세분화해 진행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채용규모는 희망되지 등 빠져나가는 인력에 맞춰 필요한 인력 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같은 규모를 뽑을 수 없다"면서 "특정 분야의 경력에 있는 전문 분야를 상시 채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하반기에도 은행권의 취업문은 좁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항셱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은행들의 배상액이 2조 원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실적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LS 손실에 따른 총당금 증가와 판매 수수료와 같은 비이자 이익 감소로 은행들은 인건비와 관리비를 최소화하는 등 선제적인 긴축 경영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은행의 실적이 악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ELS 손실에 따른 총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투자상품 판매 위축으로 비이자 이익 감소와 가계대출 축소로 하반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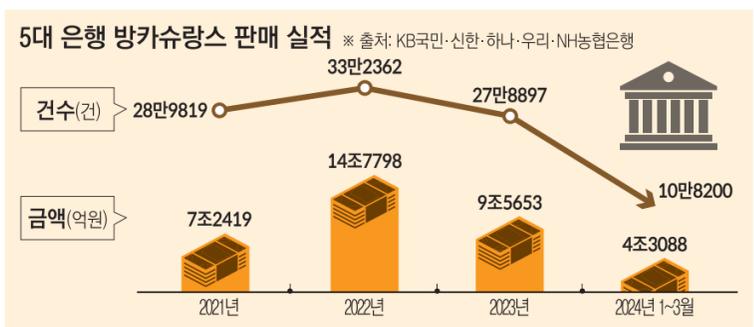
손보사 이탈 '방카슈랑스 수난시대' ... 은행은 "어쩌나"

5대 은행 1분기 4조3000억 판매 3개월만에 작년 실적 45% 달성 ELS판매 어려워져 비이자이익 제동 "25% 룰' 제한 등 규제 완화해야"

홍콩 항셱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손실로 투자상품 판매가 어려워진 데 이어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이탈하는 보험사들이 늘면서 은행권의 비이자 이익에 제동이 걸렸다. 업권에서는 방카슈랑스 '25% 룰' 등 규제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방카슈랑스 판매 건수는 1분기 기준 10만8200건, 가입액은 첫회 보험료 기준 4조3088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신규 가입금액이 9조5653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세 달 만에 지난해 실적의 45%를 달성했다.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대표적인 비이자 이익 상품이다. 보험사가 은행과 판매 제휴를 맺고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이 전체 판매 상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은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보험 성격이 가미된 상품을 말한다.

은행들은 ELS 등 투자상품의 판매가 어려워져 원금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카슈랑스의 판매를 강화했다. 국민은행은 방카슈랑스 상품 중 확정금리 연금보험과 보장성치매보험 상품의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방카슈랑스 전체 프로세스를 디지털 창구에 구현한 '방카슈랑스 디지털 창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에서 ELS 판매가 어렵게 되면 비이자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인 방카슈랑스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짜거나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은행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앞서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도 방카슈랑스 영업을 접었다. 은행이 있는 금융지주계열을 제외한 손보사들이 방카슈랑스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도 나온다.

손보사들이 방카슈랑스 사업에 소극적

인 건 사회계제도(IFRS17) 도입 영향이 크다. IFRS17에서는 저축성 보험을 팔면 팔수록 부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손보사의 방카슈랑스 비중은 전체 보험 모집의 2%대에 불과하다.

은행권에서는 손보사들의 방카슈랑스 이탈로 1개 은행에서 1개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25% 룰'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방카슈랑스 20주년 세미나'를 열고 규제 손질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삼성화재의 철수로 실제 방카슈랑스에 참여하는 손보사는 4~5개사에 불과해 이를 지키기 더 어려워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를 영업하는 생명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손보사의 이탈이 당장 비이자 이익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25% 룰을 비롯해 은행 지점별 보험 판매인 2명 제한을 해제하고 현재 막혀 있는 중신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수수료 부담 '후~'

국민카드 '위시 트래블' 출시 해외결제 특화 필수혜택 모아



KB국민카드가 해외결제에 특화된 가장 필수적인 혜택만 모은 'KB국민 위시 트래블 (WESH Travel)' 신용

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카드는 국민카드의 대표 상품 라인업 '위시(WESH)' 시리즈의 해외 특화 상품으로 조건과 한도 없이 해외 이용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혜택은 △전월 실적 조건과 한도 제한 없는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전월 실적 조건과 한도 제한 없는 해외 이용 환율 우대 100%(USD 기준) △전 세계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연 2회, 전월 국내 이용실적 30만 원 이상 시) 제공 등이다.

수수료 부담 없이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이용한 만큼만 우대환율을 적용해 결제일에 청구돼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잔액을 원화로 다시 환전할 필요가 없어 재환전 절차의 번거로움과 수수료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해외겸용인마스터 브랜드로 실물카드 발급 시 콘택트리스(비접촉결제) 결제가 지원돼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국내 여행 할인 혜택도 담았다.

△온라인 항공, 온라인 면세점 5% 할인(KB페이 결제 시)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여행자보험 10% 할인(KB페이 결제 시) △철도, 고속버스 10% 할인의 여행 관련 업종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정성원 기자 jsw@

한화손보 '레이디 헬스케어' 전용 콜센터 오픈

여성 건보 콘텐츠 월 1회 제공

한화손해보험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정보제공, 치료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이디 헬스케어 서비스' 전용 콜센터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가입 고객은 상품 가입 3개월이 경과한 후 3년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가입 고객의 임신 출산을 돕기 위해 △간강정



보정기제공 △난임 치료지원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서비스 대상 고객에게 여성 건강보험 콘텐츠를 월 1회 제공한다. 검사의 예약 대행과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이재영 기자 jiy0403@

우리은행 'WON적금' 최대 年4.7% 우대금리

여자농구 우승 기념 1.3만명 선착순

우리은행이 여자프로농구 우승을 기념해 사은 행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원(WON) 여자프로농구단'은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2023~24시즌 WKBL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KB스타에게 78-72로 승리해 챔피언 결정전 통산 12승이자 13회 우승이라는 기쁨을 토했다. 이벤트는 이달 30일까지 '우리

WON'뱅킹, 이벤트, 우승 축하 댓글 쓰기에서 우승 축하 댓글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추첨을 통해 1105명을 선정 △아이폰 15 Pro △나이키 조던 운동화 △BBQ 치킨&콜라 세트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등을 증정한다.

또한, 13번째 우승을 기념해 WON적금 가입 고객 선착순 1만3000명에게 12개월 만기 최고 연 4.7%의 특별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유하영 기자 haha@

‘파두사태’에 높아진 상장 문턱… 올 심사철회 벌써 9곳

상장 철회·예심 지연 확산

“거래소 예비심사 승인을 기다리는 기업은 정말 많은데 승인되는 기업은 많지 않아요. 상장 수요는 많은데 심사가 간간해졌다 뜻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서로 눈치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 먼저 상장에 나서면 분위기가 파악 후 후발주자로 나서겠는 거죠.”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 A씨)

올해 1분기 공모주가 양호한 수익률을 거두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이 활황을 맞이했다. 하지만 상장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파두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절차에 변화가 있었지만, 상장 과정이 간간해졌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 심사를 철회한 기업은 총 9개로 집계됐다. 올해 첫 심사 철회 기업인 옵토레인부터

예심청구한 54개사 중 30곳

45영업일 예심기간 훌쩍 넘겨

거래소 뺨푼기 상장 원천 차단

‘상장시장 숨고르기 필요’ 의견

국내기업 시총, 애플보다 작아

하이센스바이오, 피노바이오, 노르마, 코루파마, 나노시스템, 이브로드캐스팅, 이안, 대신밸런스제18호스팩 등이다.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짍삼’을 운영 중인 자비앤발런스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가 어렵다.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기도 했다. 상장위 심사 전 자진 철회를 하는 일반적 양상과는 크게 다른 모양새다.

거래소에 예심 청구서를 제출한 채 대기 중인 기업도 많다. 이전상장과 재상장

올해 상장 예비심사 철회 기업 ※ 출처: 한국거래소

기업명	옵토레인	하이센스 바이오	노르마	코루파마	피노 바이오	나노 시스템	이브로드 캐스팅	이안	대신밸런스 제18호스팩
철회 확정일 (2024년)	1월 18일	1월 29일	1월 31일	2월 5일	2월 13일	2월 21일	3월 11일	3월 29일	4월 5일

을 제외한 예심 청구 기업은 현재 54곳이다. 이 중 30곳이 상장 예비 기간을 훌쩍 넘긴 지 오래다. 본래는 거래소의 상장 규정상 예심 결과를 45영업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 연기 사유가 있다면 미룰 수 있어 지연되기도 한다.

다만 올해는 상장 예비 기간이 유독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했던 이엔셀은 지난해 7월 말 예심 청구서를 접수한 뒤 지금까지 대기 중이다. 이엔셀과 같은 날 청구서를 접수한 스팩 존속합병 하려는 노브메타파마도 마찬가지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파두의 ‘뺨푼기 상장’을 기점으로 금감원이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거래소도 덩달아 간간해졌다 분석이 나온다. 정은보 이사장의 취임 이후 임원 인사가 지연된 탓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첫 대어금 공모주였던 에이피알만 해도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받았다”며 “이처럼 금감원 심사 분위기가 삼엄해진 만큼 거래소도 함께 상장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기간 국내 시장 규모에 비해 기업이 우후죽순 상장시켜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2676개에 달하지만, 이들 상장사 시총액의 총합은 미국 나스닥 상장사 애플 시총보다 1000조 원가량 적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해보다 상장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평소보다 예심 대기 기업이 더 쌓여있어 기업들이 까다로워졌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히 심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심 기업이 많은 것도 전체적인 IPO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상장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과거와 비교하면 상장에 도전하는 기업이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밸류업 동참” 자사주 소각 기업 2배 늘었다

올 61개사 공시 전년비 85%↑
소각 규모 1.7兆→5.4兆 훌쩍

소액주주·행동주의 펀드 등의 주주 환원 요구와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자사주 소각에 나선 기업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를 한 상장사는 61곳으로, 전년 동기 33곳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사가 38건, 코스닥 상장사가 23건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소각은 시중에 유통 중인 자사주식을 매입한 뒤 없애 유통 주식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유통 주식이 줄어들면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되므로 대표적인 주주 가치 제고 방안으로 꼽힌다.

자사주 소각 규모도 크게 늘었다.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61개 기업은 총

5조4042억 원, 평균 886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자사주 소각 규모는 총 1조7481억 원, 평균 546억 원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발행 주식 수의 4.9%, 7936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를 통해 기존 발표된 배당 성향의 30%를 초과하는 주주환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은 2023년 발표한 3개년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올해 7677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에 나선 기업이 늘어난 것은 주요 행동주의펀드들이 전략을 다양화해 사 측과 대화로 풀어나가는 방향을 택하는 경우가 늘었고, 정부 기업 밸류업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ESG연구소(KRESG)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까지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기업은 66개사로, 전년 27개사 대비 늘었

고, 분기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도 전년 53개사에서 92개사로 증가했다. 다만, 올해 정기주주총회 제안 수는 52개로, 전년 72개 대비 줄었다. 한국ESG연구소는 “자사주 소각 기업의 증가는 금융당국에서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 취지와 부합하는 시장의 변화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 밸류업 정책에 발맞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차기 국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인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10개 과제를 요구했다. 이날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하므로 자사주라는 계정이 재무상태표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LG전자, 12년 만에 공모 외화채 발행

역대 최대 규모… 미래 사업 실탄

LG전자가 12년 만에 공모 외화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선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8일 LG전자가 발행을 준비 중인 미국 달러화 선순위 무담보 채권에 ‘BBB, 안정적’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이날 S&P는 LG전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으로 만기도래 차입금 차환을 포함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연구개발(R&D) 등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는 “LG전자의 후순위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모회사 LG전자의 그룹 내 영업자산 및 연결실적 비중이 상당하고 동사가 다양한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LG전자의 우선채무비율은 LG디스플레이 채무 비례 연결을 반영해 약 53%다.

LG전자의 공모 외화채 발행은 2012년 2억1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600억 원) 규모 스위스프랑 채권 발행 이후 12년 만이다. LG전자는 오는 9일부터 글로벌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가격 설정을 거쳐 외화채 발행 규모를 확정한다.

이번 외화채는 지속가능채권을 포함한다. 주관사는 BNP파리바, 씨티그룹, HSBC, JP모건, 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이다. 지속가능채권은 친환경 건물 등 다양한 친환경 및 소셜 프로젝트에 쓰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금조달이 LG전자가 발행했던 해외 채권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P는 “LG전자가 생활가전 부분의 우수한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견조한 영업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G디스플레이도 실적개선을 시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강성욱(오른쪽 세 번째) 하나증권 대표이사, 이병철(오른쪽 두 번째) 하나증권 WM그룹장 등 하나증권 관계자들이 하나증권 성북금융센터 이전 오픈 행사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증권

“MZ 자산관리”… 하나證 성북금융센터 개소

하나증권은 돈암동지점 명칭을 성북금융센터로 변경하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으로 이전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증권 성북금융센터는 하나은행 돈암금융센터지점과 같은 공간에 위치해 증권과 은행을 아우르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센터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금융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민석 하나증권 성북금융센터장은 “주식부터 채권, 연금까지 손님 요구에 꼭 맞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증권 성북금융센터는 신규 오픈을 기념해 신규 손님을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수익률 우대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외국인, 1분기 국내 주식 15.8兆 순매수 ‘역대 최대’

삼성·현대차·SK하이닉스 9.4兆

올해 1분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 시장에서 16조 원에 달하는 ‘폭풍 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러브콜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전차(電車)군단’에 집중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중 외국인 순매수액 5조1020억 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5조8460억 원을 순회수해 총 7440억 원 순회수했다. 이로써 외국인은 주식을 5개월 연속 순매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회수 전환했다.

주식의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4조215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8870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3월 말 기준 총 시가총액의 29% 수준인 820조1000억 원을 보유 중

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3월까지 외국인 자금은 전자군단(우선주 제외)에 쏠렸다. 외국인 순매수 1위 기업은 삼성전자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삼성전자 5조5024억 원으로 사들였다.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가 순매수액 2조1408억 원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SK하이닉스(1조7555억 원), 삼성물산(1조9333억 원), KB금융(6649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5212억 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3조3000억 원, 미주 1조2000억 원, 아시아 7000억 원 등에서 순매수세가 나타났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조2000억 원, 영국이 2조1000억 원 순매수, 캐나다와 사우디는 각각 1조 원, 6000억 원 순매도했다.

올해 1분기 외국인 순매수액 15조80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집계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 순매수액을 보였다.

3월 말 기준 상장채권 보유액은 244조3000억 원이었다. 외국인은 3월 중 상장채권 2조3580억 원을 순매수했고, 8조2040억 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5조8460억 원을 순회수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1조1000억 원 순매수했고, 미주와 아시아가 각각 1조 원, 4조 원 순회수했다. 보유규모는 아시아가 113조4000억 원(46.4%)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이 72조6000억 원(29.7%)으로 뒤를 이었다.

채권 종류는 국채와 통안채에서 각각 5조2000억 원, 1조1000억 원 순회수했으며, 3월 말 기준 외국인 순매수액은 220조9000억 원, 특수채를 23조1000억 원 보유 중으로 나타났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총선 후 수도권 정비사업 분양 물량 대거 쏟아진다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물량
2분기 4688가구 일반분양
1분기 1123가구의 4배 이상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갖춰진
도심지에 위치 정주여건 좋아
서울 강동·마포, 김포·광명 주목

올해 4~6월 주요 수도권 정비사업 분양 단지 * 출처: 각 사

지역	정비사업	단지명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광명시 광명 9R구역 재개발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	산성역 헤리스톤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	그란츠 리버파크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광명뉴타운의 후속 공급도 이어진다. 롯데건설은 이달 광명 9R구역 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지난해 큰 인기를 이어간 강동구와 마포구 등에서 후속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에서는 이달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총 407가구(일반분양 327가구) 규모의 '그란츠 리버파크'가 분양될 예정이고, 마포구에선 5월 공덕1구역을 재건축하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가 총 1101가구(일반분양 456가구) 규모로 공급을 계획 중이다. 또 총 1637가구 중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 '라디우스 파크 푸르지오'도 5월 분양을 진행한다. 이밖에 성남시에서는 6월 GS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산성구역재개발을 통해 총 3487가구(일반분양 1224가구) 규모의 '산성역 헤리스톤'을 분양할 예정이다. 한진리 기자 truth@

4.10 총선 이후 올해 2분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대거 포진돼 이목이 쏠린다. 특히 수도권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의 원도심 인프라와 미래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발길이 꾸준한 만큼 많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총선 이후 6월까지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468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직전 1분기 공급 물량(1123가구, 1~3월 건본주택 개관 기준)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실제 수도권에서는 정비사업분양단지가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분양시장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아파트로 집계됐다.

올해도 치열한 청약 경쟁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메이플 자이'는 8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828개의 청약 통장이 몰려 1순위 경쟁률이 무려 442.32대 1을 기록했다.

또 같은 달 공급된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 '경희궁 유보라' 역시 평균

경쟁률 124.4대 1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이어 3월에는 경기 안산시 고잔9구역을 재건축하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가 평균 10.65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업계는 이러한 수도권 정비사업으로의 청약 쏠림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금리 등으로 불안한 시장 상황이 계속되면서 안정성 높은 아파트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정비사업 아파트는 대부분 교통·교육·생활 인프라가 고루 갖춰진 도심지에 들

어서 정주여건이 좋은 편"이라며 "브랜드 건설사의 시공에 따른 우수한 상품성과 대규모 신규 아파트 조성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으로 미래 가치가 높다는 인식도 커 인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2분기 분양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유망 단지가 대거 포함돼 향후 성적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먼저 우미건설은 이달 북변3구역 재개발을 통해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74·84㎡, 총 1200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831가구다.

주택 매입 적정 시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 (단위: %)



* 출처: 부동산R114

내 집 마련 적정기 '올해 상반기' 가능하면 '학세권·역세권' 선택

부동산R114 설문조사

아파트 구입 영향 주는 요소
브랜드, 조정·커뮤니티 꼽아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가장 적정한 시기는 상반기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조건은 교육 환경이었다.

8일 부동산R114가 발표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전국 성인남녀 5064명을 대상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이뤄졌다.

주택 매입 적정 시점에 대한 조사에서 '2024년 상반기'라고 답한 응답자가 26.40%로 가장 많았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고점 대비 하락한 금액으로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은 '교육환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9.73%에 달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지 않는 사회 풍토가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학원가 등과

인접한 일명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역세권, 도로 접근성) 25.13% △주거 쾌적성(공원, 산 등과 접근성) 21.21% △편의시설 15.16% 순서였다.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역시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아파트를 선택(구입)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40.57%가 '브랜드'를 꼽았다.

브랜드 아파트는 품질, 설계, 안전성 등에서 수요자 신뢰가 높고, 하위 브랜드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는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20.76%) △단지 규모(19.91%) △실내 평면 구조(18.04%)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중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사우나(21.6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피트니스(19.18%) △게스트 하우스(14.36%) △도서관·독서실(13.21%) △다목적 체육관(9.8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건강관리나 휴식 및 여가 시간을 단지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허지은 기자 hje@

HL D&I 한라, 27년 만의 새 주거 브랜드 '에피트'

HL D&I 한라가 새로운 주거 브랜드 '에피트(EFETE)'를 공개했다.

HL D&I 한라는 신규 브랜드 에피트에 대해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 (Everyone's Favorite, Complete)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8일 밝혔다.

브랜드 철학으로는 '브릴리언트 프레스티지(Brilliant Prestige), 빛나는 삶의 완성'을 제시했다. 편안함, 안전함, 든든함 위에 스마트 기술을 더한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올해 5월 새로운 브랜드 광고(TVC) 런칭과 동시에 이전 부발 등 아파트, 프리미엄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건축물에 신규 브랜드를 적용할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 의미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적용

계획이다.

27년 만에 신규 주거 브랜드를 출시하는 HL D&I 한라의 내적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HL D&I 한라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5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07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대비 22% 증가한 307억 원을 기록

했다. 특히 HL D&I 한라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양평 등 자체 개발사업장의 입주에 힘입어 흑자전환다. 전년 대비 452억 원 증가한 305억 원에 달하는 수치다. 투자 활동 현금흐름 역시 전년 대비 586억 원 증가했다. 한국자산평가, 에어레인 등 우량 투자자산을 회수한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HL D&I 한라 관계자는 "새로운 브랜드 런칭을 통해 업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며,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의 공간을 제공해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도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삼성물산, 국내 최초 수소화합물 혼소 발전 인프라 구축

남부발전과 1400억 규모 계약
강원 삼척에 2027년 7월 완공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한국남부발전과 강원도 삼척시에 수소화합물 저장과 하역·송출할 수 있는 약 14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에서 저장탱크를 비롯해 혼소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혼소 발전은 두 종류 이상의 연료를 혼합해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남부발전 이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삼척중합발전 단지 부지에 혼소 발전을 위한 3만 톤급 규모 수소화합물을 압축해 저장하는 저장탱크 1기와 하역, 송출 설비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사다. 삼성물산 이단독으로 EPC(설계·구매·시공)를 일괄 수행한다. 2027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카타르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다수의 에너지 저장시설 공사를 수행하면서 역량을



이승우(왼쪽) 한국남부발전 사장과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삼척 수소화합물 혼소발전 인프라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물산

쌓았다. 세계적인 에너지 저장시설 전문 설계업체인 영국의 웨소(Whessoe)와 협력해 세계 최대 저장탱크 설계기술에 대한 국제인증 확보하는 등 최적의 기술 솔루션을 갖춰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에 석탄과 무탄소 연료인 수소화합물을 20% 혼합해 연소하는 혼소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간 11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심재원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본부 부사장은 "삼척 수소화합물 혼소 발전 인프라는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위한 첫 단계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해 국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병수 삼성물산 에너지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은 "국내 최초의 수소화합물 혼소 실증을 통해 확보한 EPC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je@

교대 감원·의대 증원·무전공 확대... “올해 입시 안갯속”

교대 등 10곳 460명 줄이고
비수도권 의대 1639명 늘어
킬러 문항 배제도 키포인트
“5개월 남은 수시 전략 혼란”

올해 입시에서 교대 정원 감축, 의대 증원, 무전공 입학 확대, 킬러 문항 배제 등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당장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3부터 고2 학생들까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육대·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정원이 현재 3847명에서 12%(460명) 가량 줄어든 3387명 언저리가 될 전망이다. 정확한 규모는 조만간 확정, 발표될 예정이

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 초등학교 배치계획'에 따르면 저출생 장기화로 2028년에는 서울 초등학교의 16.5%가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가 줄면서 교대 정원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의대 정원은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고령화 대응과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요 충족 등을 위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2006년 이후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증원분의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배분됐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의대 증원분은 일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날 중앙재난안전

대책부 브리핑에서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증원 규모)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더해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이 검토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부터 교육부는 무전공 입학 확대에도 나선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 및 국립대 학술성사업(국립대) 개편안 시안을 발표하면서 대학이 무전공 전형으로 일정 비율 이상 학생을 선발하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보다 깊이 탐색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이 이어진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정부는 지난해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문제를 출제했

는데, 올해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수능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해 만점자가 단 1명만 나와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오승걸 평가원장은 지난달 28일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일부 과목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면밀히 분석해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입시계에서는 올해 입시가 안갯속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근 들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한해”라면서 “현재 수시 원서 접수가 5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고3 학생들의 구체적인 입시 전형 내용이 미확정이고, 내년 입시를 치르는 고2 학생들도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시 전형이 다각도로 변화하면서 합격선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 대표는 “무전공 입학이 확대되면서 자율전공학부가 만들어지면 일반 학과의 모집 정원을 다 줄여야 하고, 각과의 모집 정원이 달라지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입시 결과 데이터를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모든 학과의 합격선이 다 엉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과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교대 정원이 축소되면서 합격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서 반수·재수생들 중 이과 최상위권이 얼마나 몰릴지, 고3 학생들의 성적이 모의고사 대비 얼마나 하락할지, 킬러 문항 배제 2년 차의 수능 난이도는 또 어떻게 될지 등 모든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아주 커졌다”고 말했다.

정영정 기자 oiljung@



낮기온 최고 26도... 초여름 날씨

서울 낮 최고기온이 23도까지 오른 8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가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낮 기온이 서울 23도, 대전과 춘천 24도, 대구 26도 등 25도를 넘나들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노령연금 분할때 별거 기간 빼야”

국민연금, 법적 부부 인정 분할
法 “혼인후 별거 실질 부부 아냐”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연금 수령자인 A씨가 국민연금 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1992년 B 씨와 결혼했고, 21년이 지난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문제는 A씨가 2022년 8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 사실을 안 B씨가 지난해 1월 국민연금 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결혼이 법적으로 유지된 기간을 근거로 B씨가 받아갈 월 분할 연금액을 18만 8000원으로 정했다. 앞서 A씨가 수

령한 연금에서도 해당 비율만큼 환수해 B 씨에게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연금 분할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대부분이 제외돼야 한다며 이반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B씨가 결혼 직후 집을 나가 거주지를 옮겼고, 2013년 협의 이혼을 할 때까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가 혼인 직후 강원도 일대로 거주지 전입신고를 마친 점, A 씨와 혼인 이후에도 상호 간 금전 거래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박꽃 기자 pgot@

“기후동행카드, 재원조달 방안 먼저 세워야”

시, 각종 할인·면제 혜택 추진
시의회 “재원 마련”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가 흥행에 성공했다. 시범사업에 착수한 지 70일 만에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하며 연간 목표치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서울시는 각종 할인·면제 혜택을 추가해 수요를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부터 먼저 수립하라는 개정조례안이 발의돼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준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4월 19일~5월 3일)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비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게 골자다.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재원 조달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후동행카

드 취지에 공감하지만 서비스 혜택을 즉흥적으로 추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탄소배출 감소와 시민경제 부담 완화를 목표로 1월 도입된 서울시의 대표적 교통혁신 정책이다. 5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7월 본사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각종 할인·면제 혜택이 추가되고 있다. 2월 26일 청년할인 혜택(7000원)이 도입됐고, 대공원·식물원·미술관 입장료 할인 및 면제도 추진 중이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경기과천시 서울대공원과 서울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서울식물원 입장료가 면제된다. 현재 서울대공원 입장료는 성인(만 19~64세) 기준 동물원 5000원·테마가든 2000원, 서울식물원은 성인 기준 5000원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기획전시 관람

료, 서울시립과학관은 관람료의 50% 범위에서 할인받게 된다.

시는 본사업이 시작되는 7월 관광객을 위한 단기간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문화산업과 공영·여가 활성화까지 연쇄적 효과를 끌어낸다는 게 서울시 구상인 만큼 부가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재원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실행계획에 따르면 예상 이용객 약 50만 명 기준 운송손실액은 약 750억 원으로 추산됐다. 월 150억 원 꼴로 재원이 들어가는 셈인데, 시와 운송기관이 50%씩 부담하는 구조다. 현재 추진 중인 대공원·식물원·미술관 입장료 할인 및 면제는 서울시 세수와 직결된다. 서울식물원 입장료 수입은 2022년 19억 7000만 원, 2023년 22억 8000만 원이었고, 서울대공원은 2022년 47억 3000만 원, 2023년 42억 7000만 원이었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추가 혜택으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관련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추경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501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변사)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사망자(변사자) 인적 사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주소	사망 일시	사망장소 인치장소	사망 원인	처리 방법
가	이천용	남	1957.12.24.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산 7번지의 12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9-2(동자동)	2024.1.24. 11:44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 81 (신월동) 서울제일요양병원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65, 604-2904 영안상조	병사	장사 후 봉안
나	임점수	남	1960.10.17.	전남 신안군 임자면 독우길 220의 1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74(후암동)	2024.1.11. 20:09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응급실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	기타 및 불상	
다	정이레	여	1939.2.6.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갈산리 495번지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17-5(동자동)	2024.1.27. 06:5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40번길 110-31 연세요양병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큰어울길 20-16 광탄 현대병원 장례식장	병사	

2. 공고기간 : 2024. 4. 5. ~ 2024. 5. 7. (32일간)

3. 발생상황

가. 2024. 1. 24. 11:44경 서울제일요양병원에서 패혈증으로 병사
나. 2024. 1. 11. 20:09경 순천향대병원 응급실에서 원인불명으로 사망
다. 2024. 1. 27. 6:50경 연세요양병원에서 요독증으로 병사

4. 봉안기간 : 5년

5. 봉안장소 : 무연고 추모의 집(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509-20)

6. 연락처 :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 (02) 2199-7074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산관리, 믿고 앉아만 있으면 돼”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를 만나보세요

자산관리의 A TO Z
TWO CHAIRS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 TWO CHAIRS

<p>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p> <p>고객별 자산현황과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추천 및 세무, 부동산 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p>	<p>TWO CHAIRS 기본서비스</p> <p>전용 상담공간, 대어금고 서비스, 시크릿뱅킹 서비스, 해외 유약 이주 상담 지원, TWO CHAIRS 매거진</p>	<p>TWO CHAIRS 특화서비스</p> <p>호텔, 다이닝, 한우 배송, 가전, 꿀머니 등</p>
--	--	---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가까운 영업점 전담직원에게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TWO CHAIRS 기본서비스는 우리은행 TC등급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WO CHAIRS 특화서비스는 금융거래 현황에 따라 선정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은행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상담가능시간: 평일 9: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불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3158(2024.04.02-2025.03.31)



SK의 시작점... 최종건·최종현 생가 일반 공개

〈창업회장〉 〈선대회장〉

두 회장 태어나 40여년 지낸 수원 평동 23평 한옥집 복원 창립 71돌 맞아 'SK古宅'으로 직물 보관 창고, 전시관 탈바꿈



SK그룹은 창립 71주년을 맞아 수원 권선구 평동에 위치한 최종건 SK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생가를 복원하여 국가경제의 성장사와 기업가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기념관 'SK고택(古宅)'으로 개관한다. 위 사진은 SK고택 전경. 아래 왼쪽은 최 창업회장과 최 선대회장이 공부방으로 사용했던 '건넌방'. 오른쪽은 생가 내부를 재현한 공간. 사진제공 SK



'SK고택'은 1111㎡(약 336평) 크기의 대지 위에 75㎡ 크기의 한옥 형태의 기념관과 94㎡의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한옥 기념관은 최 창업회장이 회사를 설립하고, 최 선대회장이 '메이드 인 코리아'



(Made in Korea)' 제품 수출과 사업과 도화에 전념한 1950~1960년대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 내부는 실제 사용했던 유품과 시대상을 반영한 전시품으로 채워 당시 SK가 사람들의 생활상을 재현했다. 처마에는 '학유당(學楡堂)'이 새겨진

수원시 권선구 평동 7번지. 눈밭으로 둘러 쌓인 23평 작은 한옥집. 1926년 최종건 SK 창업회장이, 1929년 최종현 선대회장이 태어나 40여 년을 보낸 SK가(家)의 시작점이다.

이곳에서 최 창업회장은 일제강점기의 불의에 맞선 소년에서, 한국전쟁으로 일 자리를 잃은 지역 주민을 위해 잿더미가 된 공장을 일으켜 선경직물을 세운 청년 기업가로 성장했다. 동생인 최 선대회장은 물 대는 방식을 바꿔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고 답을 올리는 총명한 아이에서 '인재보국'을 외치는 경영자가 됐다.

한국의 섬유·화학 산업을 일으키고, 반도체·그린에너지·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을 닦은 최종건 SK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생가가 대중에 공개된다. SK그룹은 8일 창립 71주년을 맞아 수원 권선구 평동에 위치한 생가를 복원해, 국가경제의 성장사와 기업가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기념관 'SK고택(古

현판이 붙었다. 창업회장과 선대회장의 부친인 최학배 공의 '학(學)'자와 '느릅나무유(楡)'에서 따왔다. 한나라 고조인 유방이 고향의 느릅나무 한 쌍을 낙양으로 옮겨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다는 유래와 연결하여 '창업자의 고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직물을 보관하던 창고는 전시관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은 SK가의 사업보국과 인재양성에 대한 경영 철학을 조망하고, 오늘날 SK가 있기까지 도전과 혁신의 역사를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최 창업 회장이 '회사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본인 세대 노력이 후대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모습을 전시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평생 인재보국을 실천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어록인 '첫째도 인간, 둘째도 인간, 셋째도 인간', '나무를 키우듯 인재를 키운다' 등도 전시관을 채운다.

SK그룹은 2022년 2월부터 평동 부지에 한옥을 개축하고 전시관을 신축하는 등 2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 복원을 완료했다.

'SK고택' 관람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관람객은 어록 카드를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다. 송영록 기자 syr@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에 임명



대통령실 새 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탁됐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교수는 국가안보실 3차장 산하 신임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채용, 현재 울산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김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비서관은 한국은행 조사역, 금융통화위원회 자문역에 이어 2000년부터 KDI에서 거시경제부 선임연구위원·부장 등을 지냈다. 2011~2017년에는 SK경제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으로 일했고, 2017년 5월 KDI로 돌아와 교수로 일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국제협력관 황성훈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승진 △콘텐츠정책관 문화산업정책과장 김경화 △체육국 국제체육과장 명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이상협 △시장감시정책과장이준현 △조사총괄담당관 한경중 ◇과장급 승진 △승무담당관 김현주 △전자거래감시팀장 박민영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지점장 최재준

부음

▲정윤신(전 광주 송일고 교사) 씨 별세, 광정진 씨 남편상, 정은영·도영·진영·미영 씨 부친상, 윤강희 씨 시부상,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양성식·장승일 씨 장인상=7일, 광주 VIP장례타운 VVIP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062-521-4444

▲김유순 씨 별세, 강기석(삼진제약항남공사 이사) 씨 모친상=8일, 가평군 농업효 문화센터 3호실, 발인 10일, 031-581-4442

▲김재석 씨 별세, 김성민(HMM 홍보팀 매니저) 씨 부친상=8일, 경희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958-9721

▲박숙자 씨 별세, 김주인 씨 부인상, 김명희·영종(전 교보생명 근무)·선종(한네트 대표이사)·현희 씨 모친상, 이재일(전 현대자동차 근무)·최권정(중부발전 부장) 씨 장모상, 임수열·김도화 씨 시모상=7일, 대전역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41-932-1414

▲강성학 씨 별세, 강명숙·중구·한구(교보리얼코 상임고문·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현구·원구(펜타곤인베스트먼트 대표) 씨 부친상, 황미중·손현주·정하진 씨 시부상, 송건수 씨 장인상, 강병민(디어스치과 의사)·강민주(한세실업 사원)·강현준(삼성물산 사원)·송현탁(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송민경 씨 외조부상=7일, 계명대 동산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30분, 053-250-8451

지구가 너무 작았던 코스모폴리탄... 故 조양호 회장 평전 출간

한진그룹, 5주기 추모제서 공개 '수송보국'...위기극복 역정 기록

반세기 넘은 시간동안 한진그룹을 세계적인 종합물류기업으로 이끈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의 일대기를 정리한 평전 '지구가 너무 작았던 코스모폴리탄' <사진>이 출간된다.

한진그룹은 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소재 신갈 선영에서 조양호 선대회장 5주기를 맞아 추모제를 열고 고인의 삶과 철학을 되새기는 평전 '지구가 너무 작

았던 코스모폴리탄'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故) 조양호 선대회장 가족을 비롯한 130여 명의 한진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평전 '지구가 너무 작았던 코스모폴리탄'은 총 10개 챕터로 구성돼 있다. 조양호 선대회장의 세계주의적 철학과 그만의 원칙을 그린 '함께해서 멀리 간 아름다운 코스모폴리탄', 임직원을 아끼고 아이들을 사랑한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담긴 '따뜻하게 조용하게', 카메라 앵글을 바꾸면 똑같은 사물도 새롭게 바라보게 되듯 그

의 남다른 식견과 결단을 담은 '같은 세상도 다르게 본 해안의 앵글경영'을 비롯해 '몰입의 기쁨을 만끽한 노력가' 등이다.

평전에는 조양호 선대회장이 '수송보국(輸送報國)'의 신념으로 숭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항공을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만든 노하우, 이를 위해 차곡차곡 흔들리지 않고 쌓아온 경영철학, 모든 사람들이 각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시스템경영론' 등 그가 생전에 그린 생각과 실천을 세밀하게 풀었다.



집필은 미국 경제경영지 '포브스(Forbes)' 한국판 기자 출신인 이임광 전기작가가 맡았으며, 그룹 관계자 및 지인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았다.

송영록 기자 syr@·사진제공 한진그룹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 치료비 손해보험협회, 7000만원 지원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사진)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의료비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손보험회는 8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신청을 받아 병원 내 자선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총 7000만원,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손해보험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새희망힐링펀드는 신복위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및 기부금으로 조성한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이다. 정성원 기자 jsw@

신한카드, 오픈소스 재단 CNCF 해커톤 대회 3위 입상

신한카드는 개방형 클라우드 기술들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소스 비영리재단인 'CNCF'에서 주관한 해커톤에 참가해 3위에 입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 대회는 CNCF가 UN(United Nations)과 협력 개최한 첫 번째 행사다.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8개국 22개 팀 개발자들이 한데 모여 오픈소스 기술을 기반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신한카드는 UN에서 제시한 10가지 챌린지 과제 중 '공동 보행-안전 지도' 부문에 참여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이동 경로를 제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출품했다.

정성원 기자 jsw@



오픈소스 비영리재단인 'CNCF'에서 주관한 해커톤 대회에 참가한 신한카드 유영훈(왼쪽부터) 대리, 황인환 차장, 홍성진 부부장. 사진제공 신한카드

한화생명·라이프플러스, 이정후의 샌프란시스코와 스폰서십

한화생명과 한화금융브랜드 라이프플러스는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다.

한화생명과 라이프플러스는 올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입단한 '바람의 손자' 이정후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잠재 고객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TV 채널을 비롯한 미디어 광고와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프로모션, 라이프플러스 트라이브 앱 이벤트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VIP 스카이프랙스를 활용해 현지 비즈니스도 강화한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화 금융계열사 해외 법인의 현지 고객 관리와 미국 내 우수 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영 기자 lry0403@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한화생명 로고가 보이는 오리를 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주루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생명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자유시장연구원장
비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제 귀를 의심했다"며 "단연코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좌파이념에 치우친 실정(失政)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그중 단연 으뜸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다.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제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

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대신 취업 근로자들의 이익을 증대시켰다는 의미에서 친노동이라고보다는 친노동정책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정책이 기업의 지급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정책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2017년 중 연평균 5.3% 상승해 오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에는 16.4% 급등한 후 2019년 다시 10.9% 상승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했다. 2년 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한국의 일자리 재앙을 초래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도산으로 내몰고 수많은 청년은 단기알바로 내몰렸다. 서민의 일자리가 날아가면서 하위 20% 가구의 무직 가구 비율이 57%까지 급등했다. 소득분배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28번의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생태계를 붕괴시켰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 중 금강·영산강의 5개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이래 개발해 오던

해외자원도 팔아치웠다.

경제만이 아니다. 9·19 군사합의로 대북 군사억제력도 크게 약화시키고 한미연합훈련도 사실상 중단시켰다. 과도한 중북진중 외교정책으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1인당 소득면에서도 미국을 능가하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중국몽' 정책이 협조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
중북진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
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
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라도 하는 듯이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봉우리"라고 조아렸다. 최근 이재명의 "세세" 발언이다 시 조명되는 배경이다. 한편으로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에서 탈퇴하는 등 미국의 거듭된 한미일 강화정책에는 판지를 걸어왔다. 마치 경제 외교 안보면에서 한국의 붕괴를 재촉하는 듯한 정책이 연이어진 5년이었다. 정권이 바뀐 뒤에 도 국회의 여소야대 횡포로 악법들이 개정되지 못

하고 오히려 '노란봉투법' 등 거대야당발 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되었다.

좌파들의 거짓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추락하는 경제와 잘못된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된 통계를 이용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정책을 잘한 것으로 자화자찬해 오다 최근 관련 장관 청와대정책실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의 동시다발적 추진으로 경기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계속하락을 지속하니 경기종합지표도 개편했다. 막무가내식 포퓰리즘과 재정지출 확대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 동안 나랏빚은 680조 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만에 나랏빚을 400조 늘려서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어 재정도 풍전등화다.

2017~2021년 문 정부 5년간은 연평균 2.4%의 성장률에 머물러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 3만 1734달러, 2018년 3만 3564달러에서 2019년 3만 2204달러, 2020년 3만 2004달러로 하락했다. 2021년 미국 제로금리 지속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으로 3만 5523달러로 상승했지만 문 정부의 실정이 아니었으면 1인당 소득면에서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었던 아쉬웠던 5년이었다. 필자도 70평생 이렇게 '못했던' 정부는 처음 본다.

넷제로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코인판 '투자자검증원칙' 잊지말길

지난 5년간 청정에너지 공급이 늘면서, 작년 전 세계 화석연료 수요의 5%를 줄이는 효과를 냈다. 이는 작년 일본과 한국의 모든 에너지원 수요를 합친 것과 맞먹는 양이다. 청정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수소 등을 말한다.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은 2021년에 9000억 달러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8.5%로 늘어 1조 9500억 달러를 전망(ZION 리서치)하고 있다.

시론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작년 글로벌 신규 원전 용량 추가는 5.5GW로 감소했지만, 개발과 실행 기간이 긴 원전 특성상 연간 변동은 큰 의미가 없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5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이 시작됐다. 올해 초, 건설 중인 원자로로는 58기며 총 용량은 60GW(원전 1개당 대개 1GW 전기 생산)가 넘는다.

수소 수전해 용량 추가는 작년에 360%나 증가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에 큰 의미는 없다. 여기서도 선두는 중국이고 EU와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작년 글로벌 에너지 집약도의 효율성 개선은 별도로. 작년 개선율은 약 1%로,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인 COP28에서 2030년까지 개선율을 두 배로 높일 것이라고 한 공약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 5년간 청정에너지의 성장은 화석연료 성장을 2대 1의 비율로 앞질렀다. 저공해 전기 생산량은 약 1800TWh(테라와트시) 늘어 화석연료 기반 전력 생산 850TWh보다 약 2배 더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청정에너지는 연간 약 22억 톤(Gt)의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같은 기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은 3배 이상 늘었을 것이다.

소형원전 등 잘하는 청정산업 집중육성을

탄소 배출 감축은 연간 풍력 발전으로 8.3억 톤, 원자력 발전 160만 톤, 전기차와 히트펌프로 각각 60만 톤과 50만 톤에 달한다. 아직 전기차와 히트펌프의 감축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판매와 장비 사용이 누적되면서 탄소 감축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EU는 화석연료 전기를 사용한 수입품에 탄소국경조정세를 작년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우리는 수출은 물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라도 청정에너지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IEA는 청정 에너지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원전과 특히 SMR(소형원전)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도 SMR 같은 잘 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집중하여 강하게 키워야 한다.

5년간 화석연료 대비 2배 규모 성장

작년 전 세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연간 추가 용량이 각각 85%와 60% 증가해 540GW가 더 늘었다. 중국과 선진국이 추가 용량의 90%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감축한 석탄 수요는 연간 약 580 Mtce(석탄 백만 톤당 단위)로, 전 세계 연간 석탄 수요의 실제 증가량인 약 440 Mtce보다 30% 많다. 이러한 감축에 태양광과 풍력이 큰 공헌을 해 각각 연간 석탄 수요의 약 320Mtce와 235Mtce를 줄였다. 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연간 발전용 석탄 수요를 합친 것과 맞먹는 양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천연가스 수요 감축(155bcm, 1bcm=10억㎥)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난 5년간 천연가스 감축 수요는 연간 약 180bcm로, 전 세계 연간 천연가스 수요의 실제 증가량 약 100bcm보다 거의 두 배나 많다.

지난 5년 동안 글로벌 태양광 발전 보급은 일본 전체 에너지의 연간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약 1.1Gt의 탄소 배출을 줄였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5년간 태양광 발전의 보급으로 연간 에너지 탄소 총배출량의 약 10%를 줄이고 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에 약 35% 증가해 자동차 판매량의 5분의 1인 1400만 대가 팔렸다. 중국과 선진국이 전 세계 전기 자동차 판매량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은 판매 자동차 3대 중 1대가 전기차, EU는 4대 중 1대다. 작년에 전기차는 석유 수요를 약 1mb/d 정도 감축에 기여해 팬데믹 이전의 석유 수요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끝낼 수 있었다.

전 세계 히트펌프 판매량은 재작년 기록적인 수준에서 작년에 소폭 감소했다. 히트펌프는 천연가스 연간 약 15bcm의 수요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투자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틈타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들의 행태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된다.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이 코인에 투자해야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코인 업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진행하는 사업 설명회에서 들은 말이다.

과거 문방구를 지나가면 두더지 게임기가 더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모습은 두더지 게임과 같다. 코인 투심이 회복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과 돈이 모여드는 추세다. 서울 강남역 일대를 돌아다니면 익명의 코인을 홍보하는 광경이 자주 목격된다. 멋진 슈트 차림의 담당자가 카페에서 대어섯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홍보하는 모습이다. 대개 우리 코인이 어디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니 미리 사뭇야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코인 채굴 불법 다단계, 코인 발행 불법 다단계 등 가지각색의 모습을 띤다. 문제는 가상자산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만큼, 한 방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다는 데 있다. 급상승하는 코인에 올라타지 못한 투자자들은 조바심을 내

노트북 너머

윤희성
미래IT부 기자



기 마련이다. 이런 업체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태는 수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불장' 당시 성행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다. 스스로를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업체도 발견된다. 기본적인 회사의 형태도 갖추지 못한 곳이 태반이다.

코인 업계에는 DYOR(Do Your Own Research)이라는 격언이 존재한다.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에는 아직 불법 코인 다단계 업체인지 검증하고 처벌할 능력이 부족하다.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때문에 당장은 투자자 당사자의 대응이 중요하다. 돈을 넣은 당사자인 만큼 망치도 스스로 내려쳐야 한다.

yoonheesung@

이투데이, 말투데이

☆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명언

"현재는 어제를 내일과 나누는 움직이는 그림자이다. 현재 속에 희망이 있다."

미국 건축가다. 주택건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그는 '프레리하우스(초원주택)' 시리즈로 유명하다. 미국의 광활한 풍토를 기반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유기적인 건축이 특징이다. 대표작은 라킨사(社) 빌딩, 폴링워터(낙수장), 일본 도쿄의 데이코쿠(帝國) 호텔.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67~1959.

☆ 고사성어 / 일엽낙천하지추(一葉落天下知秋)

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온 천하가 가을임을 안다는 말. 사소한 한 가지 일을 보고 큰일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회남자(淮南子)에

나온다. "냄비 속에서 요리되고 있는 고기 맛을 보려고 냄비 속의 고기를 전부 먹어볼 필요는 없다. 그 한 조각만 먹어보아도 냄비 속의 고기맛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가을이 깊어져 이 해가 저물어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까운 것을 보고 먼 것을 알아내는 이치이다."

☆ 시사상식 / 화이트 사이트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정책 중 하나로 개발사업자가 별도의 심의 없이 허용되는 용역을 내어서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일대와 세운 재정비 촉진구역 등을 고밀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롤 모델로 미국 뉴욕 '허드슨 야드'와 싱가포르 '마리나 원'을 예로 들어 소개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7명에서 2023년 0.72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25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 올해는 0.6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니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에 설치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년 넘게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도 2006년 2.1조 원에서 2022년 50조원으로 24배 늘렸지만, 감소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 효과를 못 보니 다양한 출산장려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인간의 생명에 1억 원이라는 인센티브가 붙는 것을 보니 착잡하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출산 정책의 효과를 따져보려면 먼저 어느 집단의 출산율이 높은가 살펴봐야 한다. 출산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소득 하위층 가구의 출산율이 가장

낮으며, 소득 상위층 가구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2010년 대비 2019년을 비교해 보면 소득 하위층은 출산율이 51.0%

감소, 소득 중위층은 45.3% 감소, 소득 상위층은 24.2% 감소했다. 현재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저소득과 중위층에는 효과를 못 보고 있고, 소득 상위층에서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소득층은 자녀 양육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상태에서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이 출산 감소를 막는 효과를 냈을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소득층에 유리한 저출산 지원정책은 정의로운 것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소득과 결혼을 통계를 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혼인을, 가정을 이루는 비율이 높다.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남성 소득 상위 10% 대비 소득 하위 10%의 결혼율은 2~4배 차이를 보인다. 40대 남성의 경우 소득 상위은 96% 결혼을 하지만, 소득 하위

논현로

이명호

(사)케이앤 이사장
미래학회 부회장



58%에 불과했다. 50대 이후의 저소득 남성은 미혼 독신으로 노령기를 맞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고소득일수록 혼인율과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다. 저소득일수록 결혼도 못하고 출산율도 낮기 때문에 정부의 저출산 지원책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고소득자에게 추가의 혜택을 주고, 저소득자는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저출산 지원 정책은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은 소득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따른 현상일 뿐이다.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는

저출산이라는 구조를 바꿀 수 없고, 이러한 구조에서 출산 인센티브는 결국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으로 작동하게 된다.

소득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다. 그렇다고 더 심해지는 초저출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출산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성인 남녀는 누구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가정을 이루고 싶도록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결혼 비용 무료 지원(신혼여행 비용 포함), 신혼집 공급 확대(임대 또는 저리 대출), 1달 결혼 휴가, 부부 소득감면 등 결혼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행복한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이 인간적이고 더 정의롭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 가정은 사회 공동체의 최소단위이다. 가정을 이루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공동체성도 높아질 것이다. 저출산을 걱정하기 전에 국가는 청년의 행복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득 낮을수록 혼인·출산율도 낮아

저출산지원혜택 소외, 정의에 반해

신혼집공급 등 결혼지원이 효과적

를 바꿀 수 없고, 이러한 구조에서 출산 인센티브는 결국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으로 작동하게 된다.

진료실 풍경

진료실 앞 막막한 환자들

아내의 진료를 위해 대학병원 소화기 내과를 방문했다. 큰 문제 아닌 진료였는데 그날 담당 교수님의 진료가 암센터에서 있어서 암 환자들이 틈에서 순서를 기다렸다. 이렇게 많은 암 환자가 있는지 몰랐다. 내가 의뢰한 암 환자들도 이곳에 와서 주변에 온통 암 환자였던 대기실에서 막막하게 순서를 기다렸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모자를 눌러 쓴 사람들, 병색이 완연한 사람들, 초조하게 어디엔가 전화하는 보호자들, 그 대열에 어색하게 있으면서 진료를 기다리다 차례가 되어 진료실로 들어갔다. 복잡한 암 환자들이 사이에서 별문제 없는 우리를 본 교수님도 한시름 놓고 여유를 찾는 모습이었다. 몇 가지 물어보고 처방받아 진료실을 나섰다.

처방전을 기다리는 사이에 어떤 여성분이 말을 걸어왔다. 그녀는 다짜고짜 자기의 병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위암이라고 해서 여기 왔어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조직검사가 미분화암이라고 하네요. 수술할지 내시경 수술로

할지 저보고 결정하라고...” 그리고 그녀보고 잠깐 밖에서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그녀 다음에 우리가 들어갔고 별거 아닌 문제로 방문한 평안한 얼굴의, 그리고 아주 짧은 진료를 마치고 나온 우리가 그녀의 눈에는 어려운 암 치료를 잘 마친 환자로 보였나 보다. 유경험자였다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아 보이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전한 것이다.

보호자 없이 혼자 온 그녀, 암이라는 사실도 청천벽력적이고 수술과 내시경 시술의 차이가 뭔지도 몰라 생각도 정리가 안 되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고 하니 그녀의 눈에선 곧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의사라고 밝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을 해 드렸다. 그리고 내 환자들을 떠올렸다. 대학병원에 가 보시라고 보냈던 많은 환자들, 그들도 이렇게 막막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조석현 누가광명의원 원장

사설

‘발암물질 범벅’ 中 이커머스에 강력 대응해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상품에 인체 유해 물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어제 중국계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치를 벗어 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발암 물질도 무더기로 나왔다.

어린이용 가족가방부터 문제였다.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DBP·DINP·DIBP)이 검출됐다. 가소제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달할 정도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다.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 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 물놀이 튜브, 캐릭터·지우개 연필, 장난감 등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서울시가 판매를 상위 31개 품목을 조사했더니 8개 제품에서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이 미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4점 중 1점은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얘기다.

앞서 전남 인천본부세관이 공개한 분석 결과는 한술 더 뜬다. 알리, 테무 등에서 거래되는 장신구 404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안전 기준치를 최대 700배 웃도는 카드뮴과 납이 나온 예도 있다. 유해 성분 검출 빈도가 높은 것은 귀걸이 37%(128점 중 47점 검출), 반지 32%(73점 중 23점), 팔찌 20%(40점 중 8점), 머리핀 16%

(25점 중 4점), 목걸이 15%(68점 중 10점) 순이다. 해당 장신구는 대개 배송료를 포함해 평균 2000원 상당에 거래되는 초저가 상품이다.

세관에서 찾아낸 카드뮴과 납 성분 또한 국제암 연구소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또 20세기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유해 중금속이다. 납은 중추신경계, 신장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중국 특유의 ‘싸구려’ 상흔은 이미 각국에서 피해 사례를 낳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선 점 빼는 크림을 알리에서 구매해 발랐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보고됐다. 이 크림은 양젓물 수준의 알칼리성 성분으로 분석됐다.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짠 맛에 호기심으로 중국 플랫폼을 이용하다 예기치 못한 해를 입은 사례를 막으려면 우선 소비자들부터 각성할 필요가 있다.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했다. 가격만 중시하는 소비 패턴은 피해를 자초하기 쉽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도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외직구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가 발족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감시망을 넓히겠다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국민이 유해 상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중국 이커머스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설레는 아기와의 첫 만남

과학세상

이로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
소아청소년과



새 생명의 탄생은 가정에 큰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한다. 과거에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며 자연스럽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관리가 집에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출산이 출고 조리원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대부분 부모들은 신생아 관리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갑갑하고 조용한 엄마의 자궁에서 지내다가 처음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아기가 겪는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

땃줄 길다고 참외배꼽 생기는 것아나

흔히 출산장면을 생각하면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고, 아빠가 땃줄을 자르는 장면을 떠올린다. 땃줄은 엄마와 아기 사이의 중요한 연결 고리로,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중요한 생명선이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는 폐로 호흡을 시작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입으로 먹어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땃줄은 절단된다.

흔히 있는 오해가 배꼽을 잘못 잘라서 참외배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배꼽의 모양과 땃줄의 길이는 상관없다. 잘라진 땃줄이 마르면서 보통 2~3주 이내에 떨어지고, 남은 부분에서 배꼽이 형성된다. 만약 4주 이상 경과 후에도 땃줄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 태어난 직후, 의료진에 의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기 진찰 및 처치가 끝난 신생아들은 병원에서 생후 첫 일주일을 보내게 된다. 신생아의 온도는 22~26도, 습도는 50~60%, 80dB 이하의 조용한 분위기이다. 집에서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아기는 아직 주위 환경에 적응이 필요한 시기 이기에 가능한 한 조용한 것이 좋다.

신생아는 2~3시간 간격으로 모유 또는 분유를 먹고, 대변과 소변을 본다. 출생 후 초기에 배출되는 대변은 끈적한 암녹색의 변으로, 자궁 내에서 아기가 먹은 세포, 태지, 양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후 24시간 이내에 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유를 시작하면 태변

은 녹색에서 황갈색으로 바뀌게 되며, 피가 섞여 있거나 흰색인 경우를 제외하면 색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상 신생아의 대변 횟수는 하루 0~7회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모유 먹는 아이의 변은 분유 먹는 아이의 변보다 묽고 횟수도 많다. 첫 소변은 출생할 때 또는 직후에 조금 나오고 얼마동안 안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첫 소변을 보며, 생후 2일 이내에 소변을 보지 않으면 검사가 필요하다.

이 시기의 아기는 먹고 잠만 자는데도 불구하고 생후 3~4일 동안은 5~10%의 체중 감소가 있다가 대개 7~10일째 되면 회복한다. 땃줄이 아니라 입으로 먹기에 먹는 양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 태변 및 소변이 배설되어 먹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많기 때문인데, 점차 회복되며 출생 후 첫 3개월 동안은 하루에 약 30g씩 체중이 증가한다. 체중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으면 아기가 수유를 충분히 하는지, 수유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아기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생후 열흘 이후 체중 늘지 않으면 확인 필요해

일반적으로 자연분만은 3일, 제왕절개 분만은 5~7일 사이에 엄마가 퇴원을 하면서 아기도 함께 퇴원하게 된다. 이 시기 아기들은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아 20cm 정도 앞을 겨우 보는 정도라 부모의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목소리나 냄새, 촉감 등으로 가족과의 유대를 느낄 수 있다. 처음 신생아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처음이라 우왕좌왕 하더라도 괜찮다. 아기는 부모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과 사랑을 느낀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세상에 없던 시 라이프

가져요, 더 나다워지는 라이프

내 손안의 모바일과 집안의 기기들이
연결되어 알아서 집안일을 끝내주는

내 손이 닿지 않아도

내 집은 깨끗하고, 맛있고, 쾌적해지는 라이프

가사에 들이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라이프

이제, 새로운 시간, 전에 없던 여유를
나를 위해 써보세요

* SmartThings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martThings 앱 설치 및 연동, 무선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 참고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